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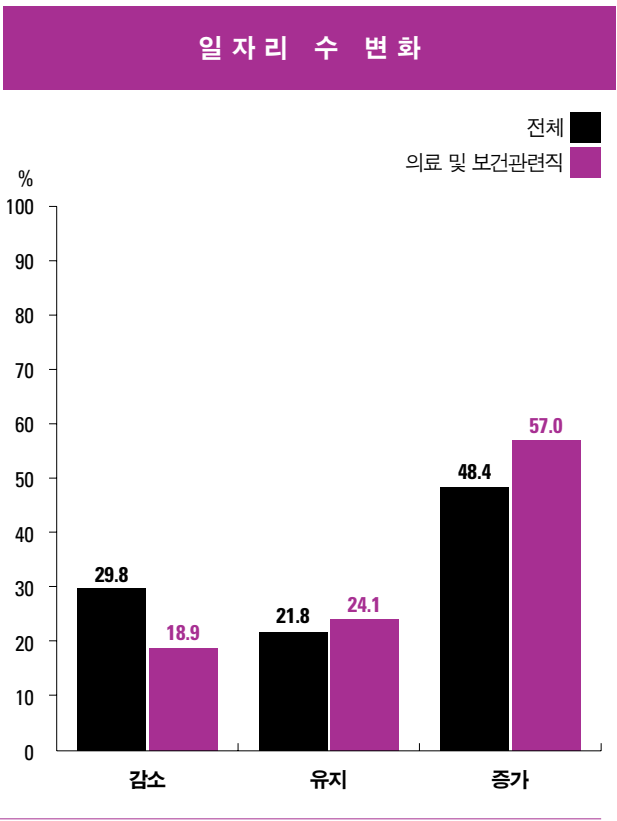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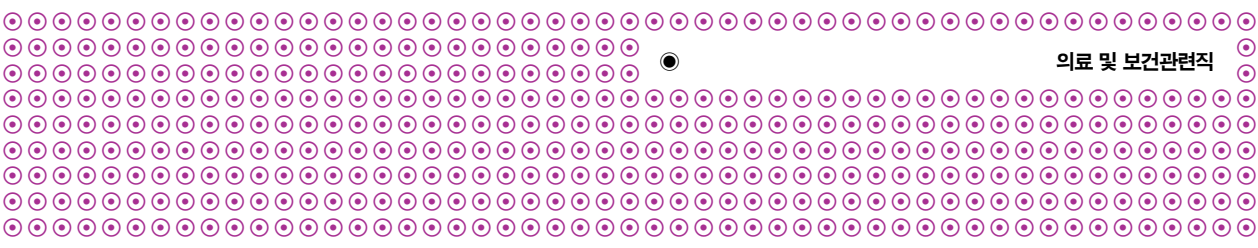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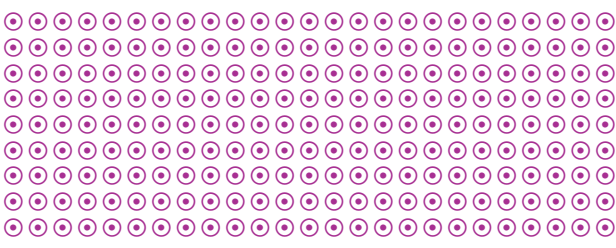
한국 직업 전망

Korea Occupational Outlook
www.work.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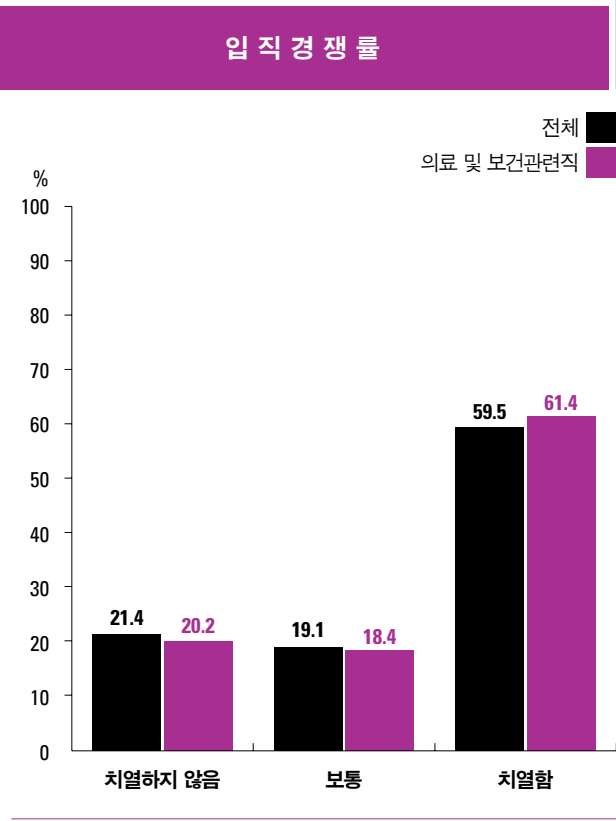
의료 및 보건 관련직

01	의사	212
02	한의사	217
03	치과의사	221
04	수 의사	225
05	약사	228
06	간호사	232
07	간호조무사	236
08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240
09	임상심리사	245
10	임상병리사	249
11	방사선사	253
12	치과위생사	257
13	치과기공사	261
14	안경사	265
15	영양사	268
16	의무기록사	272
17	응급구조사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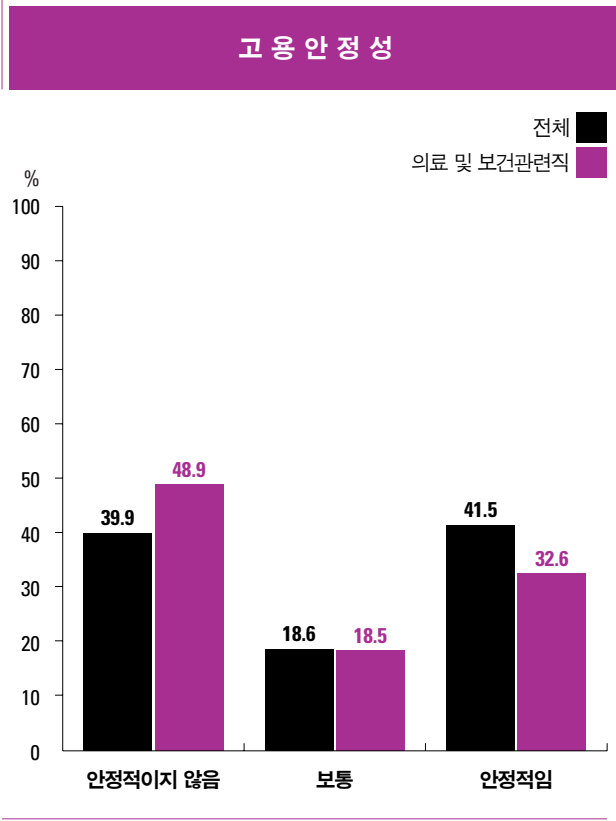
전문가가 본 향후 5년간의 직업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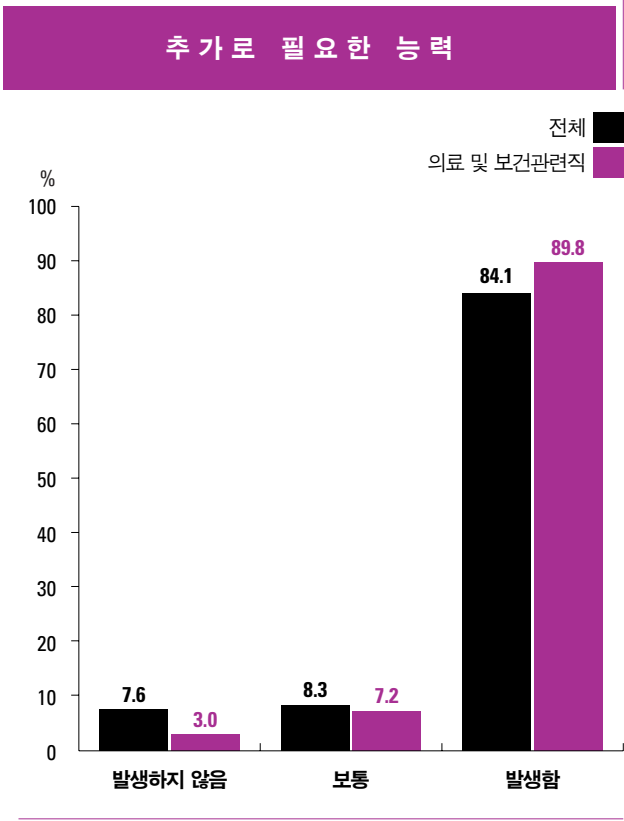
전문가의 57%가 향후 5년간 의료 및 보건관련직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것은 의료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각종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는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의료 및 보건관련 직업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인구의 증가는 의료 및 보건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건강 유지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지와 경제적 능력이 되는 고령자의 증가는 민간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관련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이다. 다만, 출산률 저하로 인해 산부인과 등 특정 분야의 일자리는 감소하게 될 것이며, 5년 이상의 장기 전망에서는 관련 직업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선진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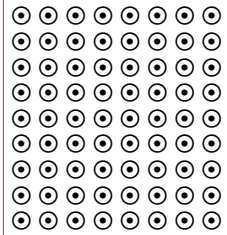
전문가의 61.4%가 의료 및 보건관련 직업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수치는 전 산업의 평균과 비슷한 수치로서 인력 수요에 비해 인력 공급이 많기는 하지만 타 산업과 비교하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의사나 한의사 등 정부에서 대학 정원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직업의 경우는 입직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등은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출인력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입직경쟁률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수나 근무환경이 좋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경우는 취업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입직경쟁률은 매우 높을 것이다. 반면에 근로조건이 떨어지는 소규모 의원의 경우는 이직에 따른 대체수요로 입직경쟁률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및 보건관련직의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48.9%로서 전체 산업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료 및 보건관련직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아 면허나 자격을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노동유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이 특정 기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동일 업종이라면 어느 직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직업능력을 보유하고있기 때문에 이직과 복직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특히, 의사나 한의사 등 개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는 자신의 직업능력과 경영능력에 따라 스스로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경우는 근로조건이 좋아 이직률이 낮은 편이고, 고용안정성도 높다.



89.8%의 전문가들이 의료 및 보건관련 직업에 추가적 능력 습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수치는 전 산업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이다. 의료 기술은 의학 연구와 국제 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장비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첨단의료장비 사용,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의 기술 습득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항상 최신기술을 습득하고, 보다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한발 앞서 나아가야 한다. 또 자신의 분야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관련 분야의 지식까지 습득하여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국제화에 맞추어 외국어 습득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는 일

● 의사는 고도의 의료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질병과 장애, 그리고 상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이다.

● 의사는 환자의 질병, 상해 및 장애에 대한 처방, 그리고 치료의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와 간호사에게 의료검사를 지시하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수행한다. 이러한 검사, 시험 및 진단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고 치료 순서를 정한 후에 여러 기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치료를 하고, 치료약을 처방하며, 관련된 치료 및 건강상의 유의점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이외에도 의사는 지역사회의 보건 향상을 위한 예방사업, 연구업무, 의학실험 등을 수행한다.

● 의사면허 취득 후 특정분야를 전문으로 하지 않고 진료하는 의사를 일반의라 하고, 면허 취득 후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전문의라 한다. 우리나라에는 총 26과의 전문 분야가 있으며, 각 전문 분야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내과 : 인체 내부기관의 질병이 있을 경우 X-레이 촬영, 혈액 검사, 심장박동 및 맥박 측정 등을 지시하고 환자의 상태를 진찰한 후 처방을 내린다.

— 일반외과 : 외상 및 소화기계통의 외과적인 질환을 진료하며, 환자를 검진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의 위험정도를 예상하여 수술절차를 결정한다. 환자의 건강상태, 약물에 대한 반응 및 병력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술도구, 장비, 설비 등의 살균상태 및 방부제 처리방법을 확인한 후 수술을 하게 된다.

— 정형외과 : 사지, 척추, 관절 및 이에 부수되는 연부조직의 이상, 골절 등을 방사선촬영, 신경검사

등을 통해 진단하여 투약 및 물리치료, 처치업무를 지시한다.

— 흉부외과 : 방사선 촬영 및 임상병리 검사를 통해 심장, 폐 및 식도, 횡경막 등 흉부에 발생하는 외과적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및 수술을 실시한다.

— 신경외과 : 검사를 통해 뇌종양, 뇌혈관, 척추 및 척추신경 등 신경계통의 외과적 질환을 진단하고 외과적 치료 및 수술을 실시한다.

— 소아과 : 소아를 검진하여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 처방 및 치료를 하며, 소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하여 예방차원의 건강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예방접종 및 기타 소아의 질병 예방 및 치료업무를 수행한다.

— 산부인과 : 태아 출생 전후의 임신부와 여성생식기관의 질환을 담당한다.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등을 수행하며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질병을 예방한다. 신생아의 분만을 돕고 필요 시 제왕절개수술 및 기타 외과적 수술을 실시한다. 또한 여성의 생식기관이나 요도기관 등의 관련질환을 진단하여 약물치료나 수술을 집도한다.

— 안과 : 눈의 이상이나 안질환 등의 이상을 검진하여 약물을 처방·치료하거나 외과적 수술을 실시한다. 시력의 손실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지시하고 교정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처방한다.

— 이비인후과 : 관련의료장비를 사용하여 귀, 코, 목의 질병과 장애를 진료해 치료하고, 외과적 수술 및 약물을 처방한다.

— 피부과 : 피부에 관한 질병을 판단하기 위해 조직검사 및 분석검사를 지시한 후 약물치료 및 방사선

치료 등을 한다. 또한 피부질환 및 기타 피부병 등을 치료하고 사마귀나 점 등 피부에 불필요한 요소 등을 제거하는 업무를 한다.

— 비뇨기과 :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비뇨생식기관의 질병과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워 도뇨관, 투열요법기, 방광경 등의 장비를 사용해 환자를 치료한다.

— 신경과 : 뇌파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중추 및 말초 자율신경계의 질환이나 근육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 정신과 : 각종 진단검사자료를 분석 및 종합해 정신이나 정서장애, 알콜중독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지닌 환자를 진단하고,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및 약물처방을 통해 환자를 치료한다.

— 진단방사선과 : 인체 내부기관의 구조 기능 검사 및 X-레이 검사, 특수조영술,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을 진단한다.

— 치료방사선과 :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방사하기 위해 방사량, 시간, 범위 등을 설정하고 신체부위에 생긴 각종 종양 및 관련질환을 치료한다.

— 마취과 : 환자의 전신상태를 검사하고 가장 안전하고 해당수술에 적합한 마취방법을 결정하는 등 수술환자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마취를 관장한다.

— 임상병리과 : 질병진단을 위해 환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하여 각종 의료기계 및 장비, 검사시약을 이용하여 분석 및 진단한다.

— 해부병리과 : 조직검사 또는 세포검사를 통해 질병의 원인, 장기나 조직의 변화, 사인 등을 진단 및 규명한다.

— 예방의학과 : 질병예방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역학, 보건관리, 환경 및 산업보건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 재활의학과 : 신체적, 정신적 장애자의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 작업요법 등의 건강 및 치료활동을 계획하고 관리 및 감독한다.

— 결핵과 : 폐기능검사, 객담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 결핵균에 의한 질병을 진단한다.

— 성형외과 : 안면이나 신체표면상의 선·후천적인 기형, 변형, 종양 등에 관해 진단하고 종양제거, 조직 이식 등의 성형수술을 실시한다.

— 가정의학과 : 청진기, 맥박측정기 등 여러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환자를 검진하고 치료 및 처방하며, 음식조절, 위생관리, 운동, 질병예방, 금연, 비만조절, 스트레스관리 등에 대해 조언하는 등 가족구성원 전원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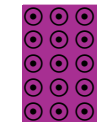
— 응급의학과 :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이용해 최단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 핵의학과 : 핵의학 영상진단기와 체외계측기를 이용하여 영상검사 및 체외검사를 하고 진단한다.

— 산업의학과 : 산업장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질환의 진단, 치료, 재활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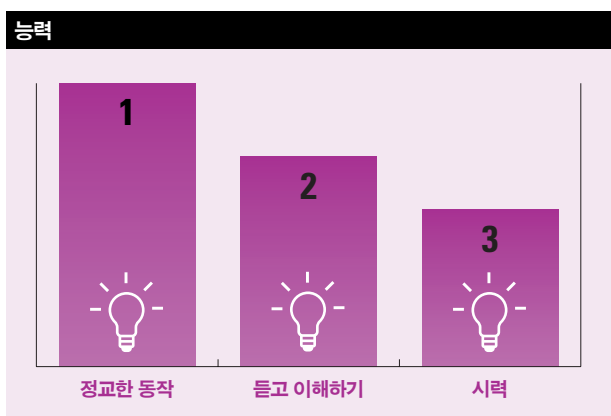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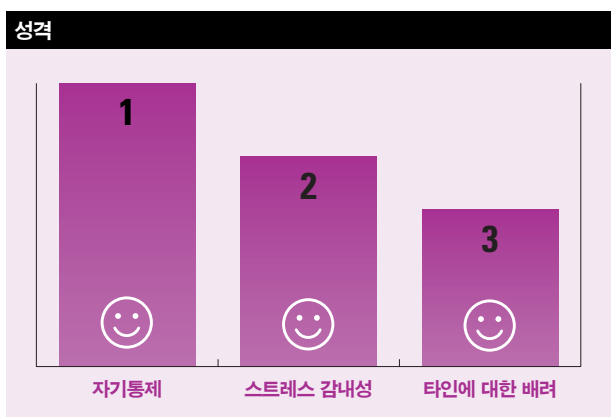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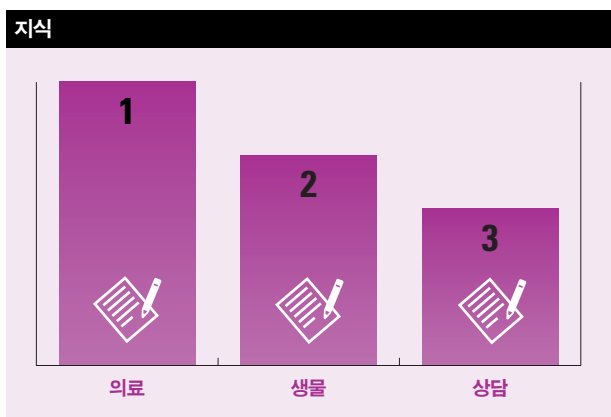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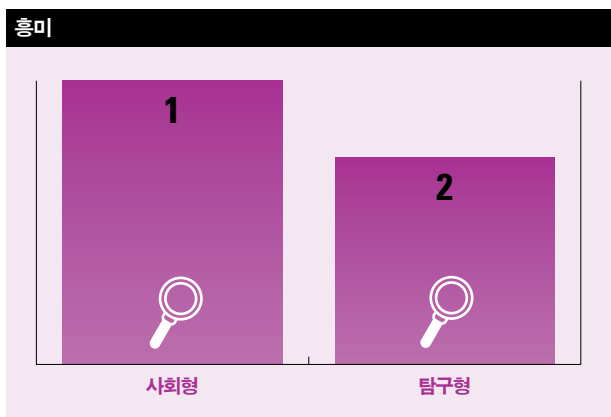
근무환경

● 개업의는 근무시간이 일정한 편이나 종합 및 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야간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사는 환자를 위해 하루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하며, 응급상황으로 호출되면 언제든지 이동해야 한다.



의사

적성 및 흥미



●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책임감이 상당히 크며, 이에 따라 중압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이밖에 세균에 감염된 환자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특별한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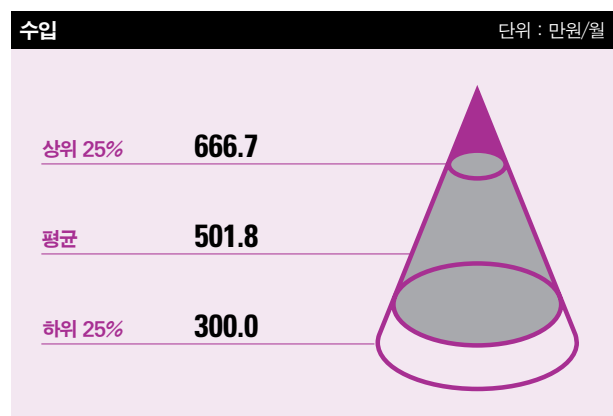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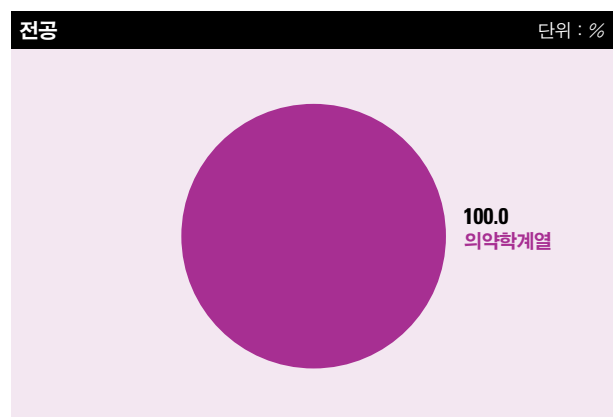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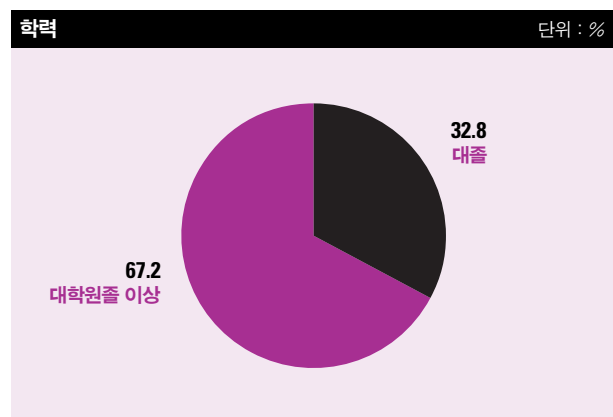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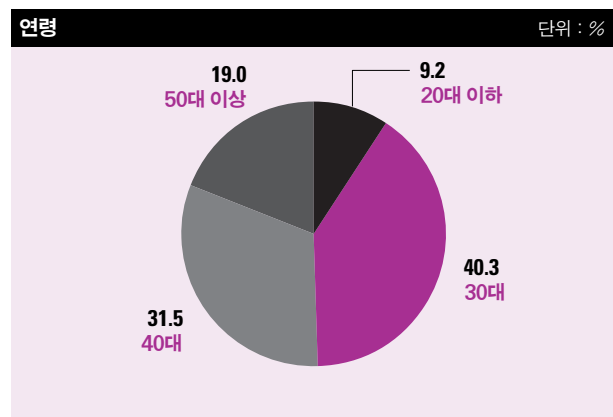
● **교육 및 훈련** : 의사가 되기 위해선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003년에 기존의 의과과정 외에 의학전문대학원제가 도입되면서 2009년까지 각 대학의 자율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제를 도입한 후 2010년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2006년 기준으로 총 41개의 의과대학 중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이 확정된 학교는 총 10개 학교이다.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등의 기초의학 분야와 내과학, 외과학, 정형외과학, 소아과학, 피부과학, 신경외과학 등의 전문분야별로 임상의학 학습과 임상실습을 하게 된다.

● **관련 학과** : 대학교의 의예(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있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예비과정인 의예과 2년과 본과과정인 의학과 4년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의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다. 둘째,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시에 전공제한은 없으나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부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또 의사자질에 관한 적성 및 인성검사 유형의 시험인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합격해야 한다. 비록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생물학, 화

종사자 수 : 54,281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학 등의 이과계열과 공학계열을 전공하는 것이 대학원 진학에 유리하며 입학 후에도 학업에 도움이 된다. 이상의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3년)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의사 면허 또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남성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의사 자격을 갖춘 후 단독개원 또는 공동개원을 하거나 전국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또는 클리닉센터 등에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대학 및 각종 연구소, 보건 의료 행정조직, 보험사, 언론사, 제약업체 등의 관련 분야에 진출하기도 한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대학 교수로 진출할 수 있다.

적성 및 흥미

●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하며, 성실함으로 환자를 보살피고 환자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술을 집도하고 각종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교함이 요구되며, 위험한 환자 치료 시 빠르게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 그리고 치료 결과를 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 또한 요구된다. 또한 장시간 근무하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인내심이 요구된다. 이밖에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의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

●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른바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의학기술 발달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질병 예방이 용이해져 질환 발생이 줄어들겠지만 만성퇴행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관련시설의 신설이 예상되면서 의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의사 1인당 인구수가 OECD 선진국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러나 의대 증설 및 정원 확대 정책의 결과로 최근 20년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매년 3,500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고 있어 의사의 신규인력 배출 비율이 인구증가율보다 높은 상태이다.

대한의사협회 등록 의사 수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의사수	58,233	60,206	68,346	69,097	

출처 : 『연도별 의사면허등록 및 정가신고 현황』, 대한의사협회, 각 연도

● 그러나 의사 수의 부족 혹은 초과는 진료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6개 전문과 중 인기 있는 과는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지만, 비 인기과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해 비 인기과의 정원 모집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력편중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직업의 전문성으로 인해 퇴직 이외의 이유로 의사 직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체 수요로 인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병원 및 의원의 개원으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지역간 편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지역의 대형병원에 근무하려는 사람은 많고 대조적으로 외진 시골지역의 경우 입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도시보다 지방에서 의사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원의 경우 과포화 상태인 도시지역의 개업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보처

● 대한의사협회
☎ 02)794-2474 www.kma.org

● 대한병원협회
☎ 02)705-9200 www.kha.or.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www.kuksiwo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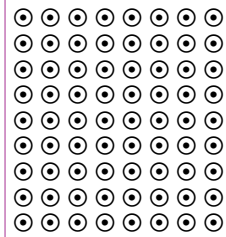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 031)440-9127 www.mohw.go.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11 의사

02

한의사



하는 일

● 한의사란 인체의 정상상태와 질병상태를 한의학 이론에 따라 진찰하고, 처방, 시술, 조제, 복약지도 등의 한방의료 행위와 한방보건지도를 담당하는 전문 의료인이다.

● 한의사는 우선 환자가 내원하면 환자의 질병 및 장애헌 망(望)·문(聞)·문(問)·절(切) 등의 방법으로 진찰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 망진(望診) : 눈으로 환자의 질병을 진찰하는 것으로 얼굴색, 피부의 윤기, 몸의 각 부위 등을 관찰하며, 여기에는 혀를 관찰하는 설진도 포함된다.

— 문진(聞診) : 환자가 호소하는 모든 증상을 듣고, 환자의 언어, 호흡이나 기침 등의 소리를 듣고 진찰한다.

— 문진(問診) : 질병의 발생, 진행과정, 증상 및 기타 정황 등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물어 진찰한다.

— 절진(切診) :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진찰하는 방법으로 맥을 짚어보는 맥진(脈診 : 진맥)과 눌러보는 안진(按診)으로 나뉜다.

— 이외에도 최근에는 경락측정기, 양도락측정기, 파동진찰기, 경혈탐지기, 비만측정기 등 첨단 기계를 사용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하게 된다.

●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처방해 주거나, 진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여러 치료법을 사용한다.

— 침 : 침은 원침, 호침, 대침 등 크기와 모양, 용도에 따라 9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9침이라 부르며, 약

침, 레이저 침 등도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 침을 이용한 침술은 대개 인체 내 기혈의 통로인 경락에 자극을 주기 위해 깊이를 조절하여 피부·근육 등에 찌르게 되며, 모든 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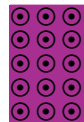
— 뜸(구) : 쑥 등의 약물을 피부의 특정 부위에서 태우거나 태운 김을 쏘임으로써 열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 부항 : 작은 그릇 모양의 치료기구를 피부에 밀착시켜 수축하는 공기의 음압(音壓)을 이용하여 피부 밑의 나쁜 피나 고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외상성 질환뿐 아니라 만성 질환에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손이나 다른 신체부위 또는 보조기계를 사용해 환자의 척추나 경혈부위 등 인체의 특정부위를 조작하여 치료하는 수기법(手技法)을 이용한 추나(推拿)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민간요법, 음식과 관련된 식이요법 등의 치료방법을 사용하며, 냉·온팩을 이용한 찜질 및 다양한 기계를 사용한 물리치료를 지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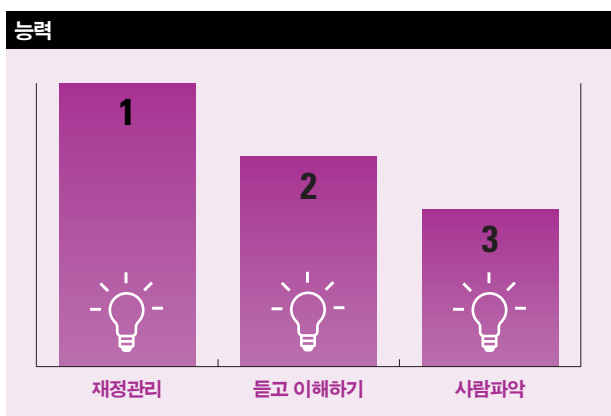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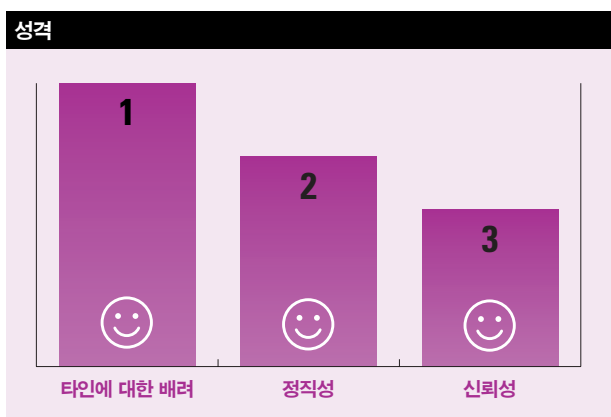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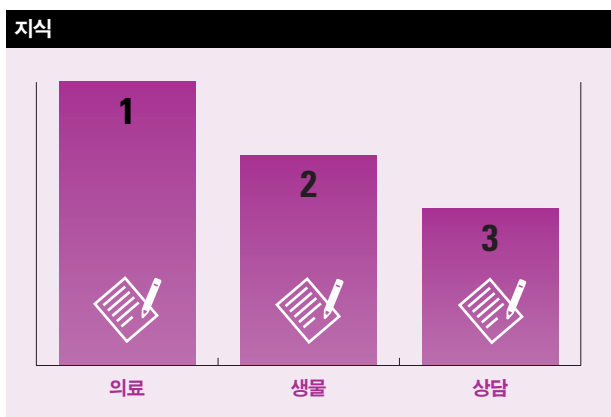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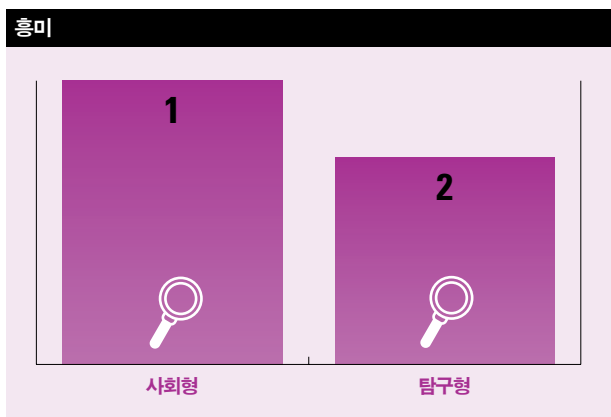
● 한의사는 병의원 외에도 연구영역에서도 활동한다. 한의학을 연구하는 한의사는 고유의 사상체질의학을 연구하고 한의학 이론의 체계적 분석 및 연구방법론을 개발한다.

● 한의사는 2000년부터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체질의학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등의 7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한의사

적성 및 흥미



Tip

한약업사와 한약사

한의사와 관련이 있는 직업으로 한약업사와 한약사가 있는데, 한약업사는 한의사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활동했던 사람으로 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한정된 지역에서 한약방을 개설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사람을 말하며, 한약사는 한약을 감별하고 조제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불리는 약사와 구별된다.

근무환경

○ 오전 9~10시부터 저녁 6~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토요일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야근은 거의 하지 않는다.

○ 위생이 철저하고 환기가 잘 되는 한의원, 병원 등의 진료실에서 진찰업무를 수행하며, 여러 병상이 놓여진 치료실 및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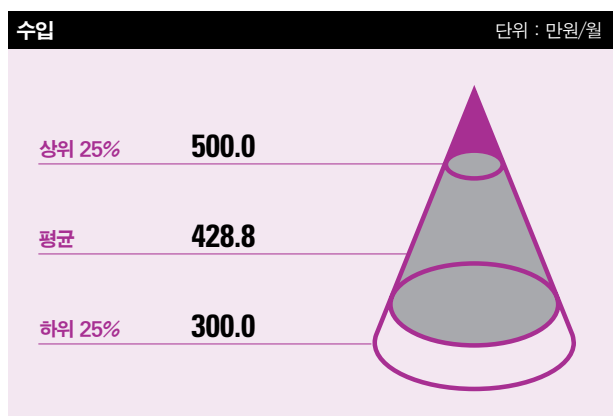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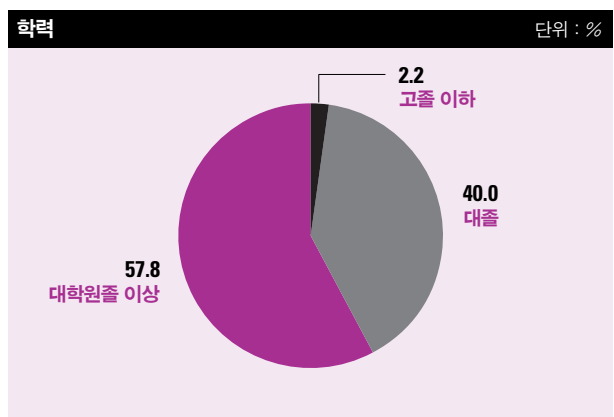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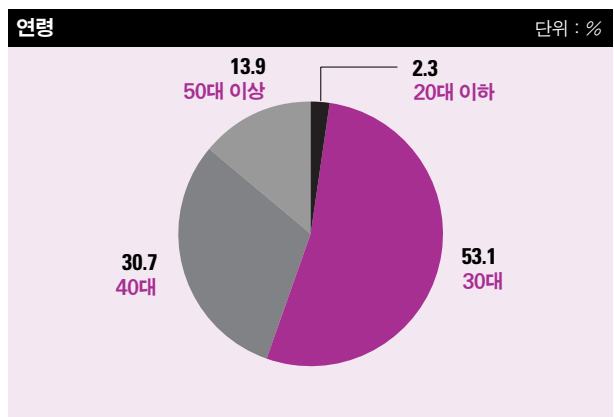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한의대에 입학하여 한의학을 전공한 후 매년 1회 시행되는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한의학과는 6년제로 한의예과 2년과 한의학과 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의예과에서는 본격적인 한의학 공부에 앞서 필요한 생화학, 생리학, 미생물학, 발생학 등 기본적 과목을 실습과 함께 공부하게 되며, 한의학과에서는 해부학, 경혈학, 약리학, 사상체질학, 본초학 등 한의학의 기초과목과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내과, 소아과, 침구과, 외과, 부인과 등의 세부적인 진료 영역을 임상실습과 이론학습을 통해 배우게 된다.

○ **관련 학과** : 한의학과(한의예과)는 경산대(대구한의대), 경희대, 경원대, 대전대, 동신대, 동국대(경주),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원광대, 우석대 등 11개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종사자 수 : 14,539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 **관련 자격 및 면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한의사 국가면허시험이 있다. 한의학을 전공하고 이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의 제도도 시행되고 있어 면허 취득 후 수련한방병원에서 1년의 일반수련(인턴)과정과 3년의 전문수련(레지던트)과정을 거친 후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면 한의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한의사 전문의 중 한방내과 전문의 취득자가 가장 많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 취업하여 실무경험을 쌓거나,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바로 한의원을 개업할 수도 있다. 또한 한의학관련 연구소 및 제약회사관련 연구소에서 한의학 연구를 하기도 한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한의원에 취업하는 경우 보통 부원장의 직위로 들어가며, 경력이 쌓이면 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 고용된 한의사의 경우 진료과장에서 부장까지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도 있으나 그 인원은 매우 한정적이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한의학 교수로 임용될 수도 있다.

적성 및 흥미

○ 한의사는 환자를 먼저 배려하는 자세와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고 인내심도 요구된다. 또 방대한 한의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암기력이 뛰어나야 하고, 대부분의 한의학 원서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한자를 알고 있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환자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및 상담능력이 필요하며, 한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원경영능력도 요구된다.

한의사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한의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웰빙 문화에 맞추어 자연주의 치료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어 한방의 수요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비 경감을 위한 한약재의 보험범위 확대, 휴대 및 복용을 간소화하기 위한 제품 개발 등 한의학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어 기초연구 분야에서의 수요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의학은 전통의학으로써 미국과 유럽 등 외국에서도 대체의학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며,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의 전통 한의약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의학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될 예정이며 2008년부터는 척추, 중풍 등 특정 질병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방전문병원 설립도 가능해 진다. 또한 한방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방 임상센터 설치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어서 한의업의 시장 및 업무영역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밖에 한방진료영역이 확대되면서 한방을 소재로 한 한방의약품, 식품산업 등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건강관리, 비만관리 등 예방 측면에서 한의학의 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2006년 6월 현재 한의사 면허 취득자 수는 16,315명이며 매년 11개 대학에서 약 750명이 배출되고 있어 한의사 고용 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지 않은 이상 공급과잉으로 인한 업계의 치열한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보처

● 대한한의사협회
☎ 02)2657-5000 www.akom.org

● 대한한방병원협회
☎ 02)596-4245 www.komha.or.kr

● 한국한의학연구원
☎ 042)861-1994 www.kiom.re.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www.kuksiwo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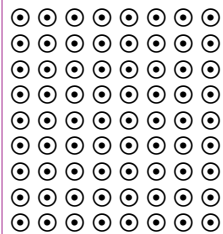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 031)440-9127 www.mohw.go.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12 한의사

03

치과의사



하는 일

● 치과의사는 치아, 잇몸, 구강조직의 질병이나 상해 및 기능 이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치과질환 예방에 노력하는 사람이다.

● 치과의사는 X-레이 및 기타 의료기기를 이용한 병리검사를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에 지시하며, 치과기구를 이용하여 구강의 외과적 수술 및 약물치료를 처치한다. 또한 환자들에게 식이요법, 칫솔질, 치아용 실과 불소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개업치과의사는 장비의 구입, 물품공급 등의 경영 전반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함께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하고 관리·감독한다. 치과 의사의 80%정도는 개업을 하고 있다. 개업의는 대부분의 치과 업무를 수행하나 일부는 다음의 10개 전문분야 중 한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 구강악안면외과 : 문제가 생긴 사랑니의 발치, 교정과 관련된 턱 수술, 턱에 생긴 암을 제거하는 수술 등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

— 구강내과(구강진단과) :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및 처치,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활용하며,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고 입 안의 연조직에 생긴 병을 치료한다.

— 치아보철과 :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 조직을 적절한 인공적 장치물로 대체시키는데, 즉 이를 씌우고, 브릿지, 틀니 및 임플란트의 인공치아 부분을 만든다.

— 소아치과 : 유아 및 어린이 구강과 관련된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예방한다. 소아의 외과적 수술을 수행하거나 구강보철물을 구강 내에 장착하

기도 한다.

— 치과교정과 : 치아의 불균형 성장 및 발달로 인한 치열과 치아 구조의 편차를 진단 및 교정하고 예방한다. 치아의 검진자료를 이용해 치료계획을 세운 후 여러 장치를 사용하여 치아나 턱의 위치 및 상호관계를 교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치아보존과 : 치아우식증, 마모증 등의 질환으로 이완된 치아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처치한다.

— 치주과 : 치주조직에 발생하는 치주질환을 진단 및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잇몸의 염증과 치석을 제거하여 치아를 윤택하게 하고, 치아의 맞물림 상태를 교정한다.

—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구강질환에 대한 진단정보를 판독하고 응용하여 진단을 한다.

— 구강병리과 : 구강 및 악안면 영역질환과 이에 관련된 전신질환의 병리학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구강영역질환의 정확한 진단법을 연구하여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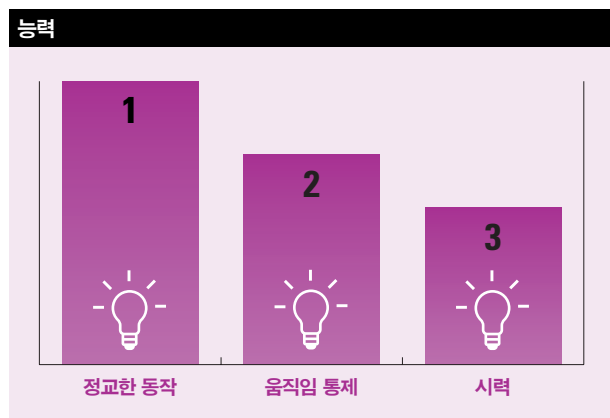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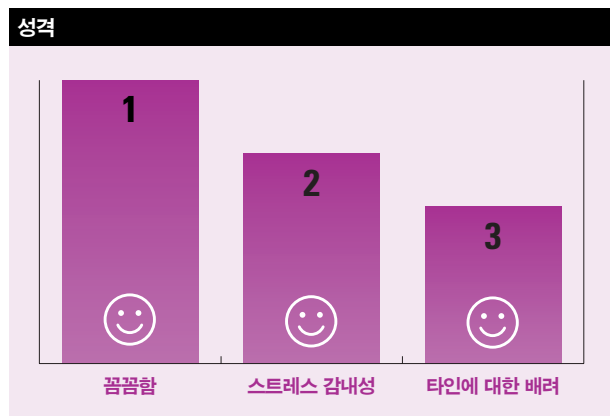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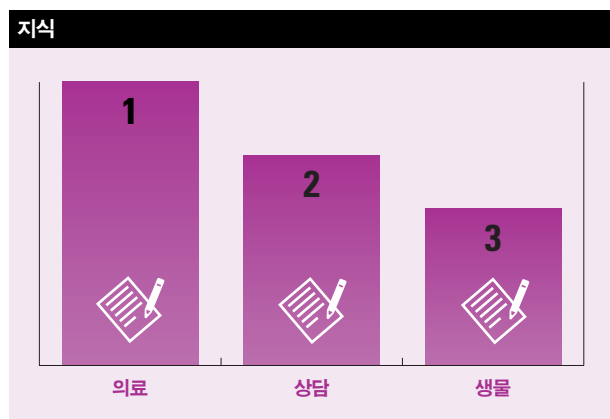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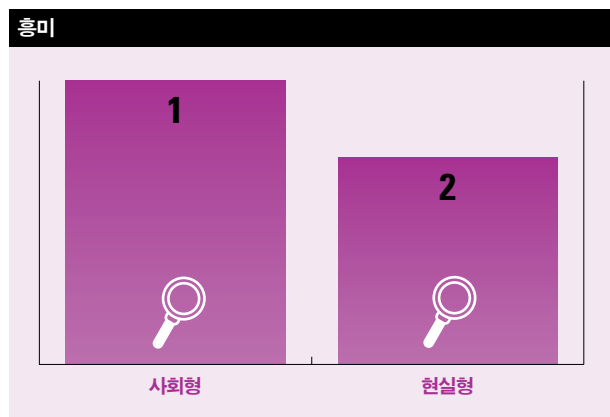
— 예방치과 : 개인과 가정을 상대로 구강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구강보건사업을 기획, 조정 및 평가한다.

근무환경

● 일반적으로 치과의사는 병·의원의 진료실에서 근무하며, 오전 9~10시에서 오후 6~7시까지 근무한다. 보건

치과의사

적성 및 흥미



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주 1~2회씩 관할 초등학교에 출장을 다니며 진료를 한다.

- 병원균 및 구강악취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건강에 항상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자 치료 시 마스크와 장갑, 그리고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치과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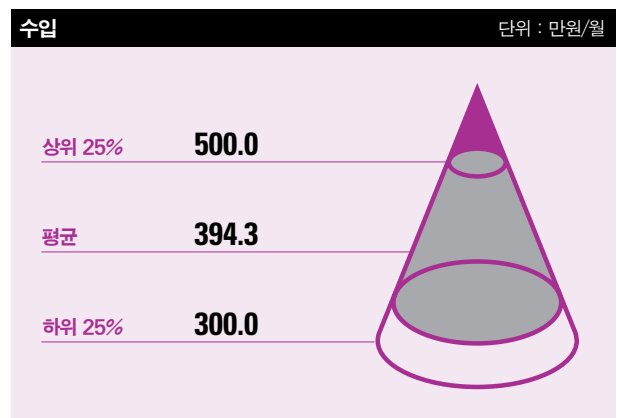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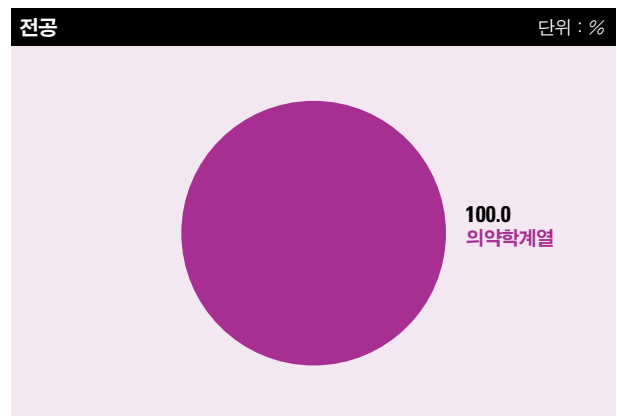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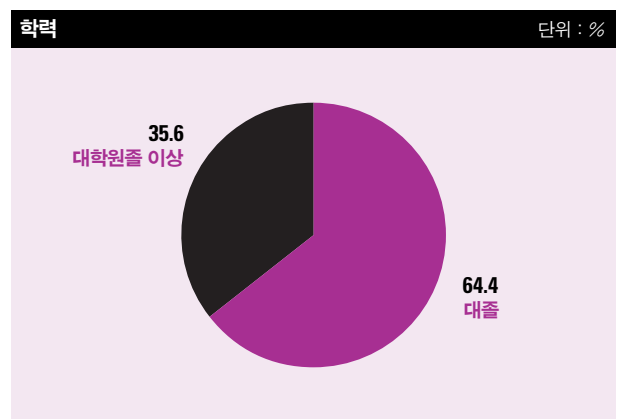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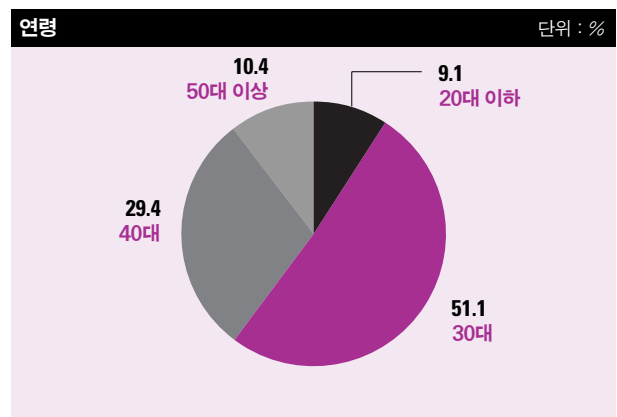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대학은 총 11개(760명 정원)로 7개 대학(서울치대, 경희치대, 조선치대, 경북치대, 전북치대, 전남치대, 부산치대)에서 치의학전문대학원제를 도입하였으며, 나머지 3개 대학(강릉치대, 단국치대, 원광치대)은 기존의 치의예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제 두 가지를 각각 50:50으로 운영하고 있는 1개 대학(연세치대)도 있다. 치의예과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치의학 전공에 앞서 생화학,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유전학, 발생학생물학 등의 기초적인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며, 그 후 질환의 원인 및 증상, 치과용 약물에 대한 인체의 반응 등을 연구하는 치의학 과정을 공부하게 된다. 이들은 구강해부학, 치과생화학, 치과약리학, 치과재료학, 구강병리학 등이 포함되는 기초치의학과, 잇몸 질환, 치과질환, 교정치료, 치아 및 구강악안면 조직 회복 등의 연구를 위한 구강내과의학, 치과교정학, 치과보철학, 치과보존학, 구강내과학 등의 임상치의학을 배우며, 임상실습도 병행하게 된다.

- **관련 학과** : 대학교의 치의예과(치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등이 있으며,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전공은 관계없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치과의사 국가면허시험이 있다. 치과의사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존의 치의예과 형태로,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과대

종사자 수 : 12,679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학에 입학한 후 졸업하여 치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4년간의 과정을 마친 후 치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 : 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점수와 대학 4년간의 학점 평균(GPA),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 실적, 면접 등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DEET는 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응시할 수 있으며, 자연과학영역, 언어추리영역, 공간지각영역 그리고 모형제작을 통해 손기술을 측정하는 수기영역이 포함된다. 또 전문대학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정된 선수과목을 학부 때 이수해야 한다. 각 전문대학원마다 상이하지만 국어, 영어 등과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등의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방법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2004년에 시행된 전문의제도에 의해 수련치과병원에서 1년의 일반수련(인턴)과정과 3년의 전문수련(레지던트)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합격하면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남성의 경우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3년간 근무해야 함) 치과의원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개원하거나 치과병원 또는 의원에 취업해 근무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직접 병원을 관리하며 근무하기도 한다. 취업한 경우 병원의 경영 및 실무를 익히고 경력을 어느 정도 쌓은 후 개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치과의사로 활동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의학관련 연구소 또는 대학에서 연구업무를 하거나 교수로 임용될 수도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의 국가공무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연구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외국으로 진출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의 치과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치과의사

적성 및 흥미

● 치과의사로서의 사명감 및 희생정신이 필요하며 환자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친절한 태도와 원만한 대인관계능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작은 실수에 의하여 환자의 구강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며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또한 계속적인 연구와 공부가 필요한 직업인만큼 인내심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치과의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아관리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구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좀 더 높은 질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심미적인 차원에서 치열을 교정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증가로 보철 및 임플란트 분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에서 70세 이상의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의치를 보급하는 등 구강보건에 대한 정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치과의사의 수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치과의사의 고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치과 병·의원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면허를 등록한 치과의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6
치과병원	96	103	108	124	127
치과의원	11,157	11,556	12,083	12,548	12,810

출처 :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연도

면허 등록 치과의사 수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치과의사수	19,672	20,446	21,344

출처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각 연도

●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치과 병·의원에 고용되기도 하지만 80% 정도가 개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퇴직이나 사망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직이나 전직이 거의 없는 고학력, 고소득의 직업이라는 특성으로 면허취득자가 곧 치과의사의 고용규모가 되기 때문에 신규면허취득자가 매년 배출되는 만큼 이들의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구강보건인력 수급 및 관리체계 개발』(2003년)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치과의사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이나 그 폭은 넓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6년부터 치과의사의 초과공급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어 치열한 입직경쟁이 예상된다.

관련 정보처

● 대한치과의사협회
☎ 02)498-6320 www.kda.or.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www.kuksiwo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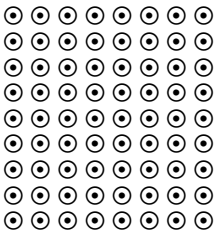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 031)440-9127 www.mohw.go.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13 치과의사

04

수의사



하는 일

● 수의사는 애완동물 뿐만 아니라 가축, 야생동물, 희귀동물, 실험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주로 하며, 그 외에도 동물용 의약품 개발, 가축 품종개량 연구, 축산물 검역 등 하는 일이 매우 다양하다.

●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흔히 임상수의사라고도 한다. 고객이 아픈 동물을 데리고 오면 기존의 병력과 진찰을 통해 병을 진단하고 처방·치료를 하며 필요한 경우 x-ray, 초음파 등 각종 검사를 하거나 외과수술을 한다. 또한 병원에 따라 입원치료를 하기도 하며 분만을 도와주기도 한다.

● 이외에도 수의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한다. 국가기관에 소속된 수의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광견병이나 조류독감, 돼지콜레라와 같은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에 참여하며, 소, 돼지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도중에 폐사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업무를 하거나 농가를 교육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가축 번식 및 개량에 대한 연구, 새로운 축산기법을 연구하기도 하며, 동물약품의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분야에 종사하기도 한다.

● 도축장에서 식품 안전성을 위해 도살 전의 가축과 도살 후의 고기를 검사하는 일을 하는 수의사도 있다. 또 외국에 수출하는 국내의 축산물과 해외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검사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 계란, 우유, 어패류 등이 모두 수의사의 검사 대상이다. 이밖에 동물용 의약품개발, 동물용 사료와 관련한 연구를 하기도 한다. 또 야생동물 및 희귀동물의 보호 활동에도 참여한다. 또한 동물원, 수족관에 있는 동물의 영양상태 섭취, 번식, 사육과 관련한 일을 하기도 하며, 경마, 승마용 말에 대한 약물테스트, 신체검사, 부상당한 말의 치료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근무환경

● 수의사의 종사 분야는 매우 넓기 때문에 근무환경도 매우 다양하다. 동물병원에서 내원하는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축산 농가를 위한 지도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일을 한다. 또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약품을 취급해야 한다.

● 수의사 업무는 특히 봄, 여름에 예방접종 등의 업무가 많으며, 응급하게 치료해야 하는 동물이 있을 때는 야간에도 일을 한다. 동물들은 치료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난폭해 질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수의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수의학과는 6년 과정으로 예과2년, 본과4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과에서는 해부학, 약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등 기초과목을 배우고 본과에서는 각종 동물을 진단, 치료하기 위한 수의학관련 전문이론과 실습위주의 수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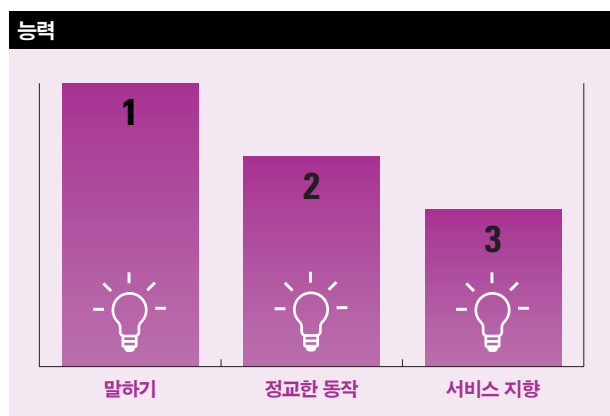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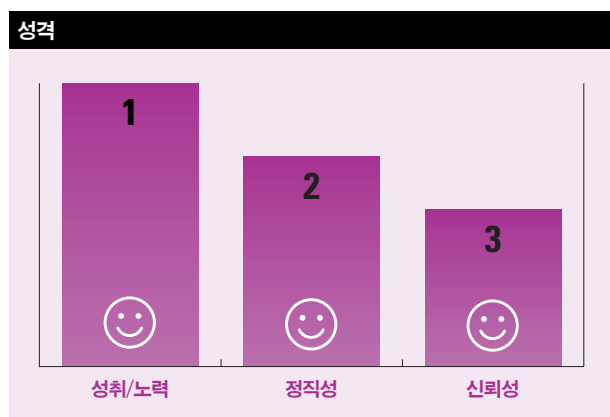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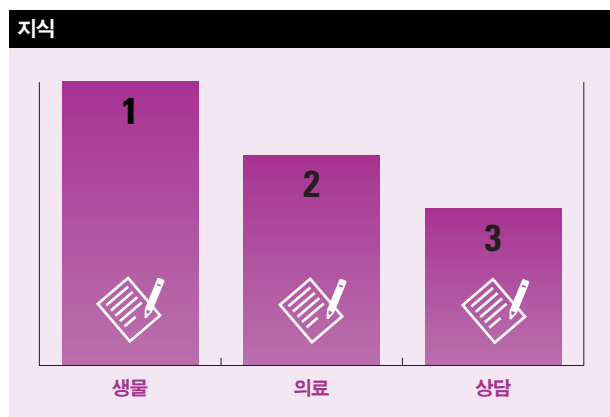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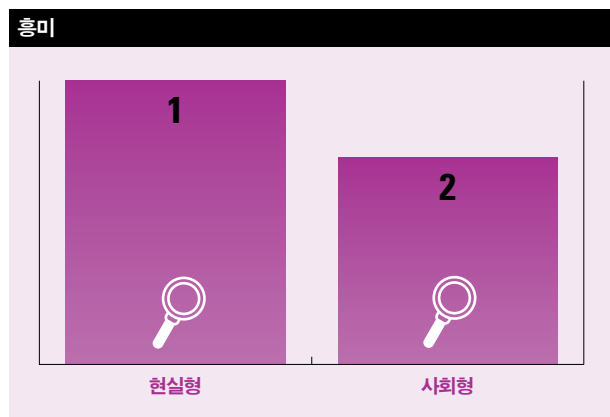
● **관련 학과** : 9개의 국립대학교와 1개의 사립대학교에 수의학과가 있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수의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립수위과학검역원에서 시행하는 수의사 국가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수의사 면허가 주어진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비롯해 육가공업체, 동물약품회사, 사료회사, 가축을 번식시키는 종축장, 동물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 시·도 축산위생

수의사

적성 및 흥미



연구소 및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보건안전연구원, 국립보건원, 축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국가기관 연구원에서 시험·연구 및 방역 업무를 할 수도 있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동물약품업체, 사료업체 등의 일반기업체에서는 자체의 승진체계를 따르며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수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일반적으로 수의직 7급으로 시작하여 공무원 승진체계에 따라 승진한다. 수의사는 소, 돼지 등을 진료하는 대동물병원에서 개, 고양이 등을 진료하는 소동물병원으로 옮기기도 하며 약품회사, 사료회사로 옮기거나 자신이 직접 동물병원을 개원하기도 한다.

적성 및 흥미

- 동물을 좋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동물은 아픈 곳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력이 필요하다. 수의사는 외과처치도 빈번하기 때문에 세밀한 손재주가 있어야 하고, 응급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침착함이 필요하다.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들 털에 심한 알레르기가 없어야 하고, 청력과 시력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직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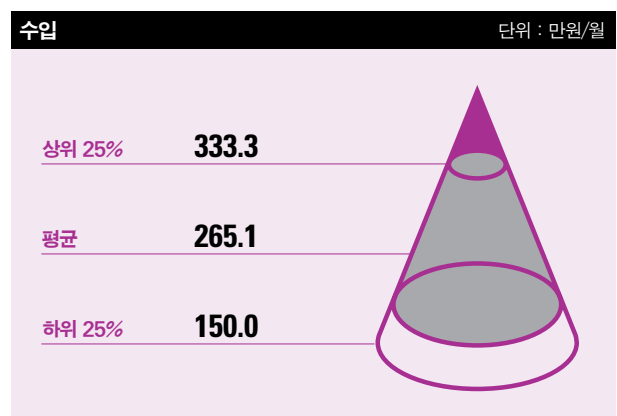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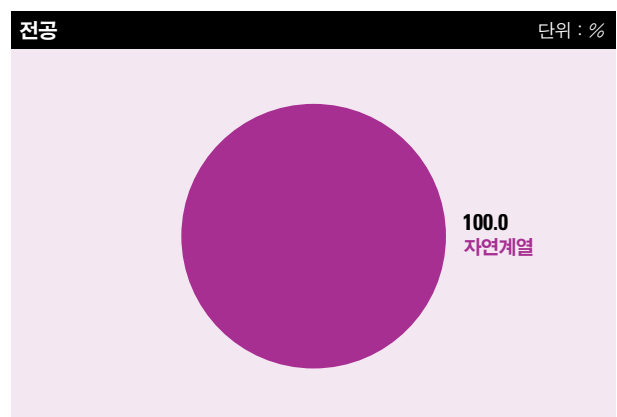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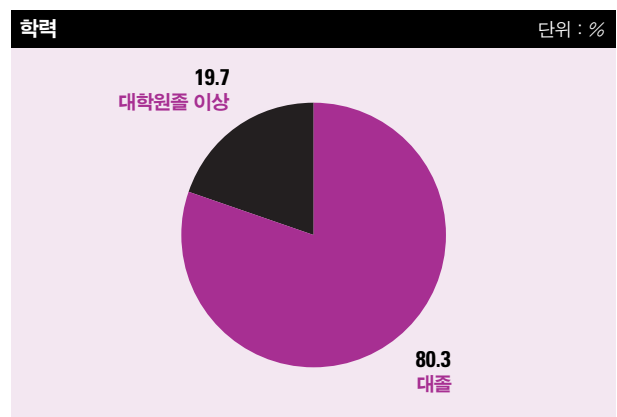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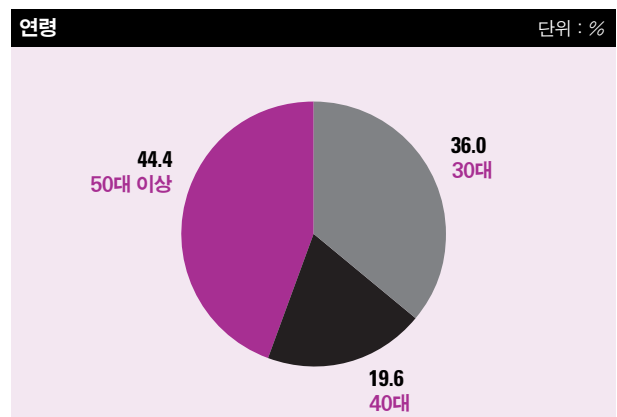
- 향후 5년간 수의사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핵가족화와 독신자 가정, 노인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개나 고양이를 통해 정신적 위안을 삼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애완동물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생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애완동물의 예방접종, 진료, 분만 등을 담당할 수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 또한 최근에는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등의 동물 질병이 국경을 넘어 전염되고 그 범위도 넓어지면서 인명에까

종사자 수 : 5,949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지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과 방역 작업을 위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더하여 축산물의 수출 및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 최근 몇 년간 대형종합병원과 관련 기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의 실험동물시설이 크게 늘어나는 등 실험동물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또 현재 실험동물복지 및 동물실험과 관련된 각종 법규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험동물 수의사의 역할과 인력수요 증대가 기대된다.

-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 면허자 수 현황』에 따르면 매년 300~400명 정도가 신규로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심지 동물병원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의사 면허자 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10월
총 면허자수	11,755	11,831	12,148	12,524	12,965

출처 : 대한수의사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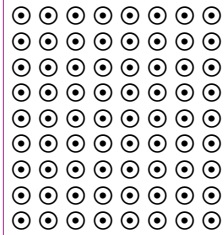
관련 정보처

- 대한수의사회
☎ 031)702-8686 www.kvma.or.kr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031)467-1700 www.nvrqs.go.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20 수의사

05 약사



하는 일

●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새로운 약품을 개발 및 연구·관리하는 약에 관한 전문가이다.

● 약사는 자신의 약국을 개점해 운영하는 개국약사, 약국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관리약사, 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약사, 식약청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약사, 그리고 제약회사나 판매회사에서 근무하는 제약·유통약사 등으로 근무하는 곳에 따라 다양하게 불린다. 따라서 약사는 근무하는 곳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 개국약사나 관리약사를 중심으로 약사의 직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또는 공인된 조제방법에 의해서만 약을 조제할 수 있다.

— 우선 고객이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처방전을 확인하여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처방전에 이상이 없으면 처방전에 따라 지시된 약을 약물의 무게와 양을 측정해 혼합하여 조제한 후 환자에게 주는데 이 때 투여경로, 투여량, 투여간격을 확인시켜준다.

— 환자에게 약에 대한 설명, 복용방법, 저장법, 주의사항, 부작용 위험과 그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며, 변질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냉동이나 기타 방법으로 저장, 보관, 관리한다.

— 또한 조제한 의약품과 반출한 독성물질을 기록하며, 의약품, 화학약품 및 기타 조제약품 등을 주문하고 약품의 공급을 관리한다. 의약품의 특성, 순도, 농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분을 분석하기도 한다.

● 이외에도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의 연구개발, 신약 연구, 약효 연구 및 실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화장품, 식품첨가물 등의 안정성 연구를 하고, 환자에게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한다.

● 의약분업 이후 처방약품 조제업무, 복약지도 업무 등이 증가하면서 과거보다 약에 대한 전문적인 약품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근무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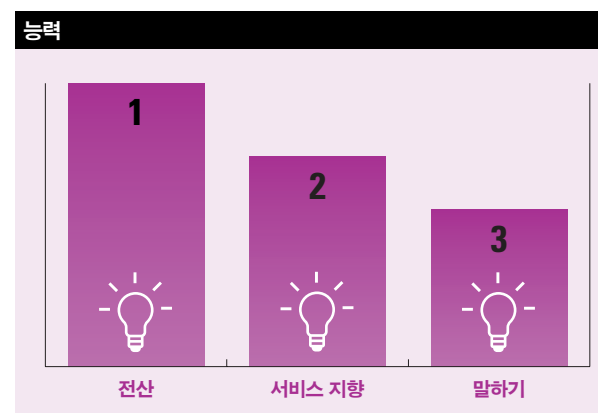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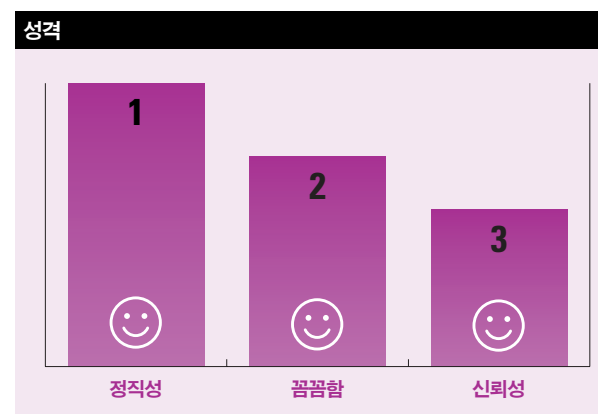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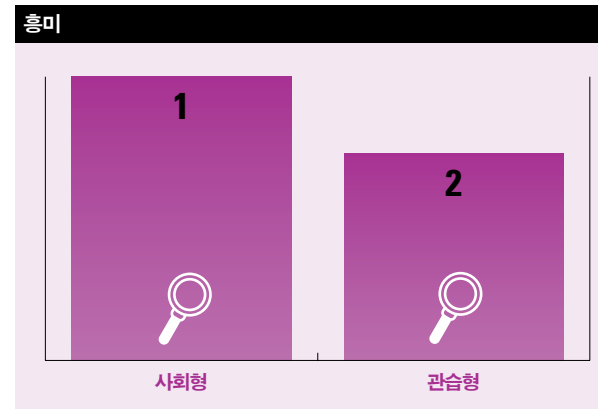
● 일반 소규모 약국에는 보통 1~2명의 약사가 근무한다. 하루 10시간 이상 고객에게 서비스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하기도 한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교대로 당직근무를 한다.

●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보통 한 지역 내의 약국 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한 달에 1~2회 정도 휴일에 근무하기도 한다.

● 일반 약국 및 병원 안의 약국 모두 밝고 쾌적한 환경이나 대부분의 약국이 작고 비좁아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 고객을 항상 대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근무시간 내내 서서 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적성 및 흥미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대학을 졸업한 후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약학대학은 약학과, 제약학과, 한약학과로 나뉜다. 2006년 현재 총 20개의 약학대학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이 중 약사가 되고자 한다면 약학과 및 제약학과를 전공하면 된다. 약학의 경우 대학에 따라 약학부, 약학대학 등 학부로 신입생을 모집하여 2학년부터 약학과, 제약학과로 전공을 나누기도 한다. 약학대학에서는 물리, 화학 및 생물을 종합한 광범위한 이론 및 기술을 배우며, 교육과정에는 보통 해부생리학, 약화학, 생약학, 약제학, 유기약품제조화학, 환경위생화학, 약국관리학 등이 전공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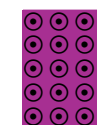
Tip 약학대학 수업연한 변화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2009년도부터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약대가 아닌 다른 전공에서 2년 이상 기초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4년 동안 약학전공 및 실무를 배우도록 할 예정이다.

● **관련 학과** : 대학교의 약학과, 제약학과 등이 있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약사 국가면허시험이 있다.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약학대학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하여 졸업한 후 약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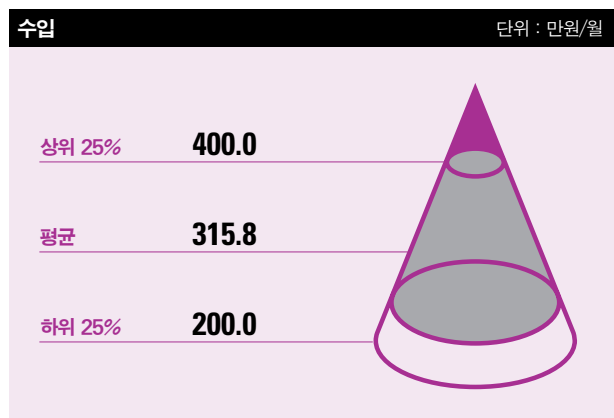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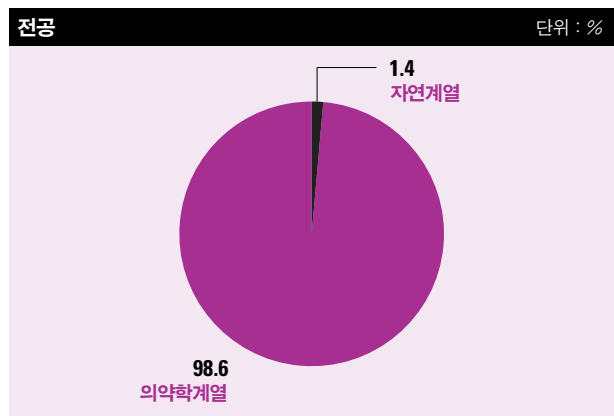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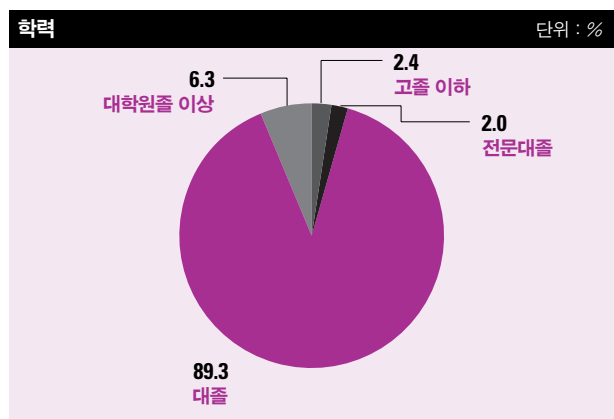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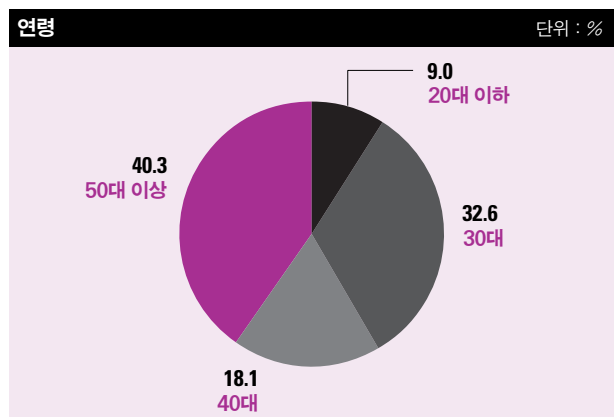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약학관련 전문잡지 및 신문, 인터넷의 채용공고를 통해 취업하며 학교 선후배나 교수 등 지인을 통해 입직하기도 한다. 제약회사 연구직의 경우 보통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다. 외국제약업체에서는 외국어 실력 및 경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공무원(7급) 시험에 응시하여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며, 화장품업체에 진출하여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를 하거나 식품업체에도 진출할 수 있다.



약사

종사자 수 : 36,715명(한약사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다.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주로 진출하는 분야는 약국, 병원, 제약회사, 임상시험전문기관의 약제, 연구 및 개발, 생산 및 품질관리, 마케팅, 임상시험관리 분야 등이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일반적으로 면허취득 후에는 관리약사로 취업해서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약국을 개업한다. 제약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관리직급인 과장이나 부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며, 병원의 경우 약제부의 부장까지 승진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 승진 체계에 따라 승진한다.

적성 및 흥미

- 약학의 기본이 되는 물리, 화학, 생물 등 자연과학의 기초학문에 흥미와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또한 약국의 업무도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 요구되며, 직접 약국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경영능력도 필요하다. 이밖에 약물 복용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고객에게 지도해야 하므로 언어구사능력 및 대인관계기술이 요구된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약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약사 활동 영역의 다각화, 약학대학 수업연한 변화,약품 및 식품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 등은 약사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매년 약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원은 1,250여 명 정도이다. 이들은 주로 약국을 개업하거나 약국이나 병원 등으로 취업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대와 약품의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 그리고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으로 약사의 활동 영역이 다각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약회사

및 식품회사의 연구 및 품질개발 분야, 약품의 임상시험관리 분야, 그리고 식약청 등 공공기관에서 의약품이나 식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정책입안 등의 분야에서도 약사의 활동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약학대학의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뀔 예정이다. 따라서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대가 아닌 다른 학부나 학과로 입학해서 2년 이상 기초 및 교육과정을 마친뒤 4년에 약학전공 및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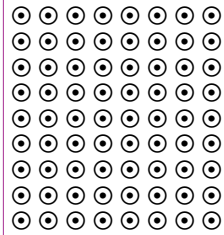
- 2000년 의약분업이 후 약사의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약국에 고용되어 활동하는 약사의 수가 2,000명 수준에서 2005년에 8,000명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관리약사의 대부분은 여성인력으로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이·전직이 높은 편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체수요에 의한 고용도 발생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 채용에 어려움도 겪고 있다.

관련 정보처

- 대한약사회
☎ 02)581-1201 www.kpanet.or.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 031)440-9127 www.mohw.go.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30 약사 및 한약사



하는 일

●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회복은 물론 건강한 사람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의 처방 및 처치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위한 기본적인 간호업무로는 입원실 준비, 체온, 맥박, 혈압 측정, 약물 투여, 각종 검사 설명 및 준비, 통증 관리, 영양관리 등이 있으며, 수술실, 분만실 등 특수파트에서는 수술준비, 수술의사 돕기, 분만 진행정도 확인, 분만의사 돕기 등이 있다. 급성질환이나 만성질환의 급성악화, 수술과 관련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실체적, 잠재적 건강문제를 가진 중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에서는 생명 유지를 위한 호흡간호, 음식물 주입, 환자감시장치를 이용한 간호 등이 이루어진다.

● 간호사의 활동영역은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복지관, 요양시설, 학교, 산업체, 연구소, 보험회사 등 매우 다양하다. 활동분야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도 다르다. 학교나 산업체에서 활동하는 보건교사나 산업간호사는 처치보다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에 더욱 힘쓴다.

●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직위에 따라 업무가 구분된다. 경력을 비롯해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추어 수간호사로 승진하면 한 병동을 맡아 간호사와 환자, 관련 물품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간호부서의 최고 수장인 간호부서장은 간호부서의 예산편성 및 집행, 간호업무 기획 및 감독, 조정 등을 담당한다.

● 한편 질병이 점점 복잡해지고 간호기술과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도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전문간호사제도가 법제화되어, 2006년 기준으로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등 10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되었다. 2007년부터는 중양, 임상, 아동전문간호사 과정이 신설된다.

● 이외에도 조산사는 임신부의 임신 및 분만 전 과정을 도울 뿐 아니라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로, 조산원을 개업할 수 있다.

근무환경

● 24시간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병원의 특성상 통상 낮 근무, 오후 근무, 밤 근무 등 3교대로 근무한다.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단, 외래 등 입원환자가 없는 병동을 비롯해 보건소, 학교, 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정규시간에 근무한다.

● 이에 따라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 생활 리듬의 불균형,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체력 소모가 많고, 다양한 병원균에 노출될 수 있어 기초 체력과 함께 건강관리는 필수다.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전국의 간호대학은 2006년 현재 4년제 대학 65개교, 3년제 전문대학 63개 등 모두 128개교이다. 해외취업 등이 활발해지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간호사들이 늘고 있다.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간호학사가 되는 방법에는 4년제 대학의 간호사학사학위특별과정(RN-BSN) 편입, 학점인정제, 독학사 제도 등이 있다.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의학 과목과 성장발달, 기본간호학, 정신간호학, 아동, 성인, 노인간호학을 비롯한 간호행정 및 윤리, 간호연구 등 간호학 교과목으로 이뤄진다. 각 과목마다

이론강의와 함께 임상실습이 병행된다.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 전공과 함께 교직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건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1년간 조산 실습과정을 거쳐 조산사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관련 학과** : 전문대학(3년제) 및 대학교의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등이 있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시험, 조산사 국가시험 등이 있다. 간호학을 전공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된다.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등의 10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임상, 아동, 중양 등 3개 분야의 교육과정이 2007년부터 개설된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석사 수준)을 마친 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에서 1년간의 수습과정을 마쳐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면 조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간호사는 의원급보다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등 규모가 큰 병원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의 개인의원에서는 대부분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다. 대형병원은 보통 공개채용제도를 통해 간호사를 채용한다. 시험에 통과하면 소정의 교육기간을 거쳐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입사한다. 병원 외에 보건복지부, 보건소, 보건진료소, 교정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너싱홈 등을 창업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보험회사,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연구간호사, 의료정보회사, 의료기기업체 등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다. 또한 해외취업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국가 간호사 면허증과 일정수준의 영어능력 및 경력을 갖추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입직 후 10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면 수간호사로 승진할 수 있다. 대형 병원의 수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석사학위가 요구되기도 하며, 전문대학 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승진에 좀더 유리하다. 병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간호사, 수간호사, 간호과장, 간호팀장, 간호부서장으로 승진하며, 부원장 정도의 직위까지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관련분야를 더 공부하여 언어치료사, 음악치료사 등 치료전문가가 되기도 하며, 석·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의 교수로 임용될 수도 있다.

적성 및 흥미

●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성격으로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의료진 및 직원 그리고 환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또한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및 판단력도 있어야 하며,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으므로 항상 정확하고 꼼꼼해야 한다. 이밖에 의료기기를 다루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력과 세심함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이다.

직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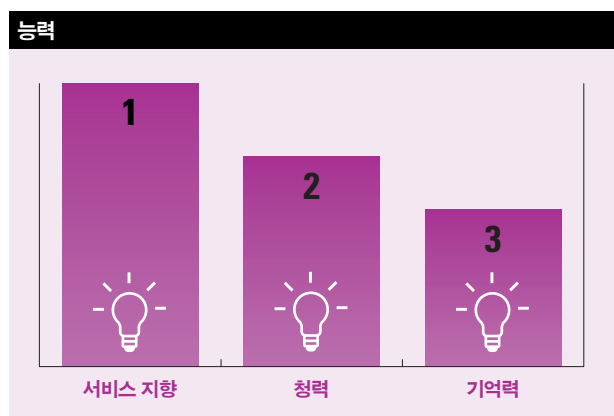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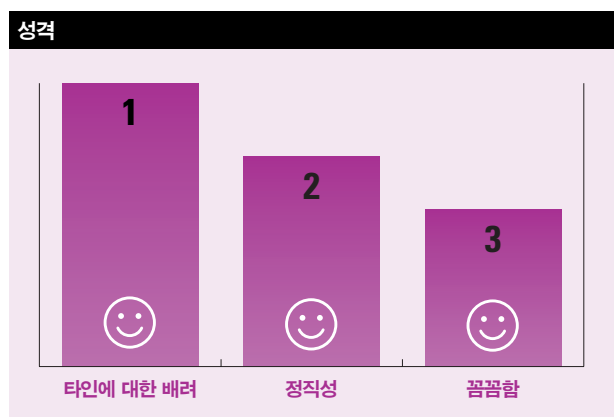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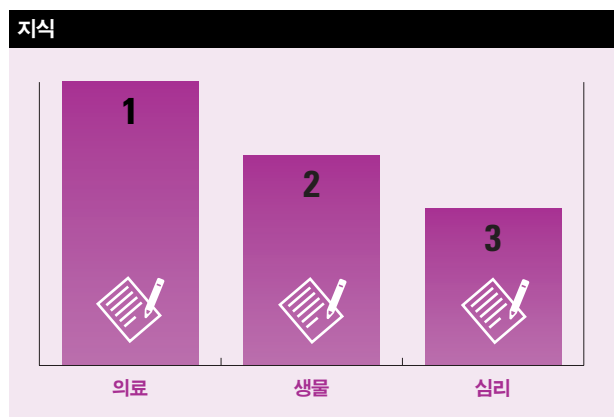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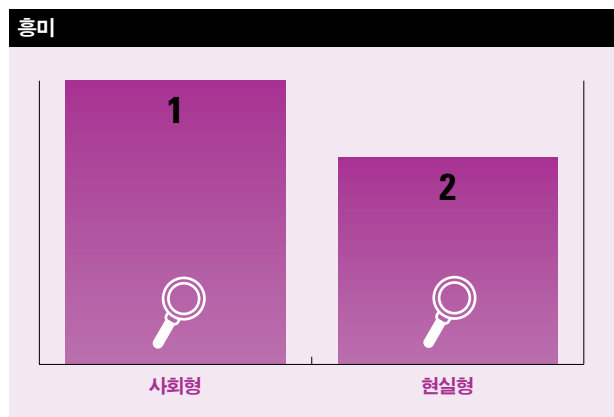
● 향후 5년간 간호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1999년부터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인력비율을 기반으로 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개선하여 병원들의 간호등급 상향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급성질환 병상 당 간호인력은 0.21명으로 OECD 국가의 최저 수준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간호사

적성 및 흥미



● 또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의 노인관련시설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간호사의 취업 전망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생활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머물렀던 환자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하는 가정·방문간호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간호사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해외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을 국내에서 치를 수 있어 준비된 간호사들의 미국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비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미국 취업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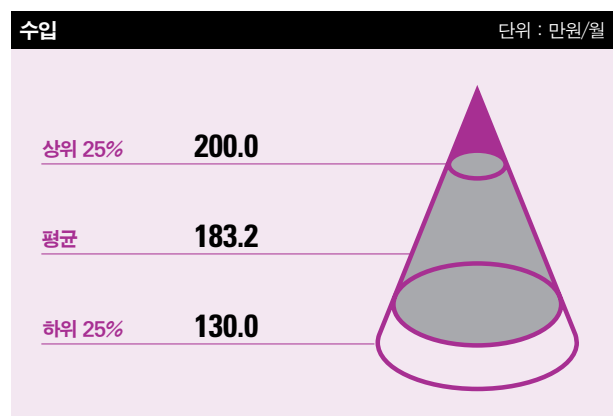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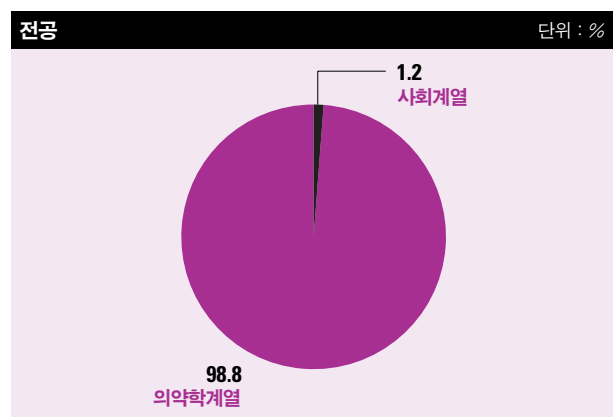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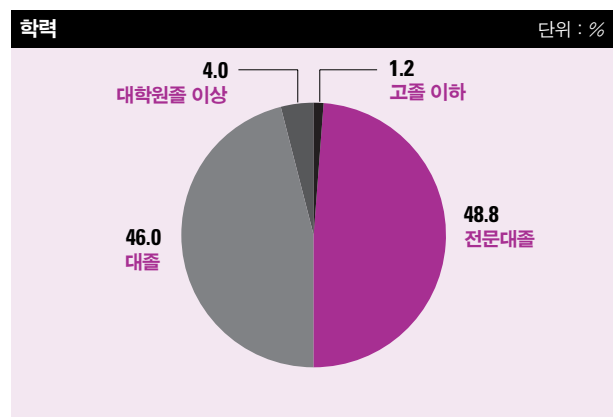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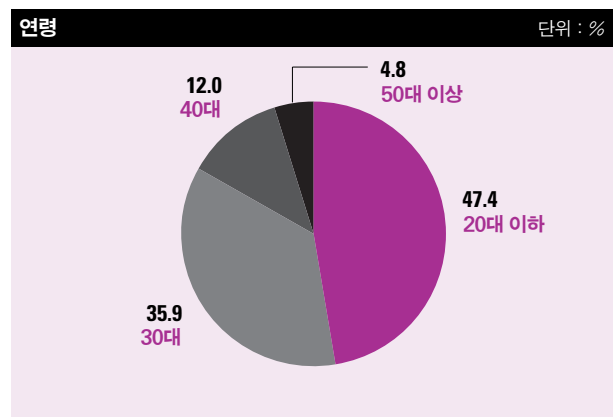
● 요컨대 의료업계에서는 점차 다양화되는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향상시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더 많은 간호사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문간호사 제도의 확대에 인하여 각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간호사가 배출되면서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의 학생 대비 비율이 낮아 관련제도만 정비된다면 향후 간호사의 일자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보처

- 대한간호협회
☎ 02)2279-3618 www.koreanurse.or.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 031)440-9127 www.mohw.go.kr

종사자 수 : 139,367명(조산사를 포함한 수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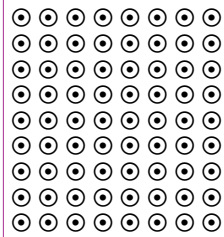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40 간호사(조산사 포함)

간호조무사



하는 일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보육시설 등에서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와 간호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간호조무사는 종합병원은 물론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업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 진료보조 업무 : 환자 안내하기, 진료 준비하기, 진료 보조하기, 한방진료 보조하기, 치과진료 보조하기, 검사 도와주기, 투약 도와주기
- 간호업무 보조 : 간호처치도와주기, 환자상태 보고하기, 임종간호 도와주기, 수술준비 도와주기, 원무지원하기, 물품관리 도와주기, 문서관리
- 기본간호 : 위생간호하기, 환자돌보기, 운동 및 활동 도와주기, 기초간호도와주기, 응급상황 도와주기
- 환경관리 : 병원감염예방하기, 치료적 환경 유지하기, 사고예방하기
- 간호업무 : 간호처치, 산부인과업무, 수술실 업무, 정신과 업무, 회복실 업무

근무환경

간호조무사는 병원보다는 의원에 주로 취업하기 때문에 당직이나 야간 근무가 많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편이다.

환자와 항상 접촉해야 하는 만큼 병원균의 감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에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외에도 서서 근무하고 환자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 소모가 많아 힘이 들고, 다양한 환자를 상대해야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되는 길

교육 및 훈련 :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고 1년간 간호학원에서 이론교육(740시간)과 실습교육(780시간) 등 1,5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실습교육은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4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은 전국 시·도에서 1년에 2회, 통상 3월과 10월에 실시된다. 시행일자는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간호학원의 교육은 간호관리, 성인간호, 모성간호 등의 기초간호학, 보건행정, 보건교육, 산업보건 등의 보건간호학, 모자보건, 환경위생, 질병관리사업 등의 공중보건학, 의학용어, 의료보험 실무 등에 관한 이론과 실기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진다.

관련 자격 및 면허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 응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적성 및 흥미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통 학원의 추천이나 공개채용을 통해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내과, 외과 등 의원, 기업체 의무실, 보건소, 사후조리원, 사회복지기관, 보육시설 등으로 취업한다. 보통 병원보다는 의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복리후생이 좋은 종합병원에 취업하기도 하나 경쟁이 치열하다.

승진 및 경력개발 : 승진체계는 각 병원이나 의원마다 상이하다. 일부 병·의원의 경우 경력이 쌓이면 책임간호조무사로 승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이 인상되는 형태로 승진이 이루어진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특별전형을 통해 일부 대학의 간호과 및 치과위생과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간호학이나 치과위생학을 전공한 후 간호사나 치과위생사가 될 수 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각 시·도지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씩 받아야 한다.

적성 및 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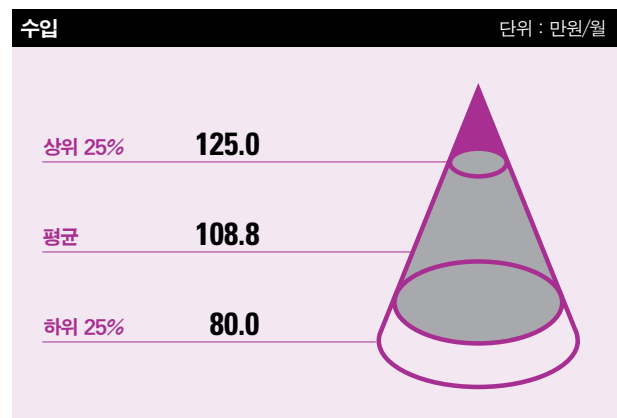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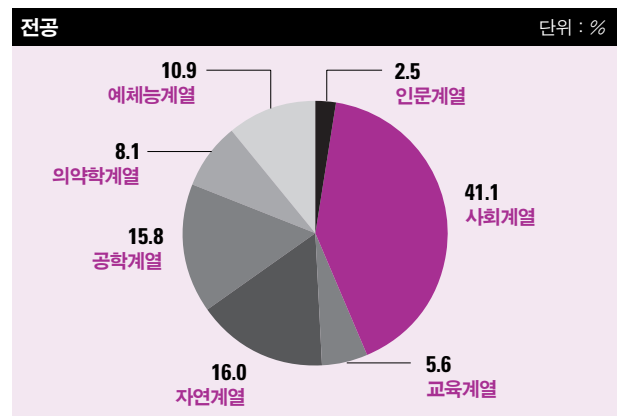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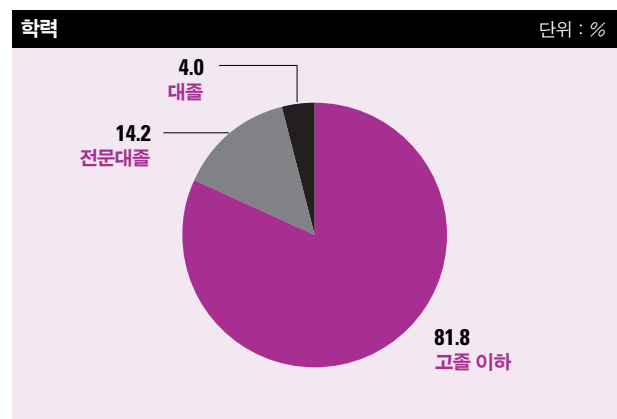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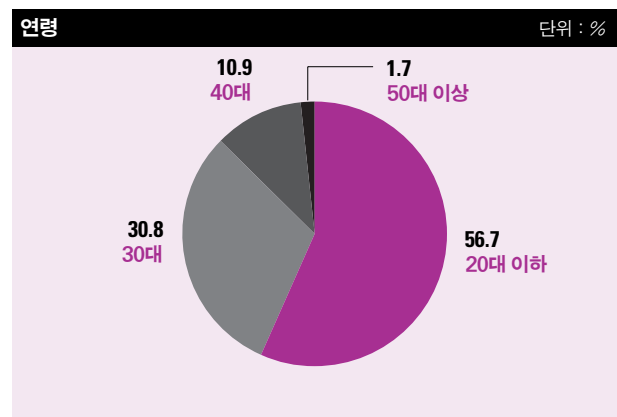
늘 환자나 환자 가족과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성격이어야 한다.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야 하며 의료진 및 직원, 그리고 환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응급상황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및 판단력도 있어야 하며,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으므로 항상 정확하고 꼼꼼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를 다루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력 및 세심함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이다.



간호조무사

종사자 수 : 104,522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간호조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민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의 국민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보건시설, 특히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관련시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간호조무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병원 재정의 개선차원에서 간호조무사의 고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의료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경향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2005년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34만 여명에 이른다. 자격증 소지자가 전부 현업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간호조무사는 중소규모의 개인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에 주로 종사하는 등 의료기관에 주로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의료기관 수의 증감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고용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조사지표』에 의하면 해마다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요양기관 수	(단위 : 개소)			
연도	2002	2003	2004	2005
요양기관 수	65,549	67,960	70,394	72,921

출처 : 『건강보험통계조사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연도

●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여성인력이 대부분으로 출산 등에 의해 노동시장을 떠나거나 임금 등 근무조건의 문제로 타 분야로 전직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 이에 대한 대체수요로 일자리 기회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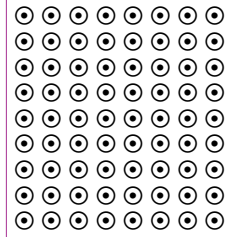
관련 정보처

● 한국간호조무사협회
☎ 02)838-8682 www.k-lpn.or.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77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하는 일

● 물리치료사는 근골격계의 이상과 급·만성통증 및 염증이 있거나 신경이 손상된 운동·감각장애 환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냉·온찜질이나 적외선, 초음파, 전기자극 등의 물리적 요법이나 체계적인 운동 치료를 실시하여 신체적으로 손상되고 마비된 기능을 회복시키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및 치료를 하는 사람이다.

● 물리치료는 노인물리치료, 신경계물리치료, 산부인과물리치료, 전기치료, 산업체에서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치료 등의 전문분야로 나눌 수 있다. 예방 및 치료 방법에는 근력강화운동, 관절운동, 스트레칭, 보행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의 운동치료, 물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한 수중치료, 열 및 전기치료 등이 있다.

●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상태 및 신체기능을 평가한 후 관절운동검사, 근력검사, 보행분석, 반사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록 및 평가하여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며, 계획에 따라 예방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 작업치료사는 적절한 치료이론과 작업활동을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성인 혹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발달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아동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보건의료 전문가이다.

● 작업치료사는 일상생활 활동훈련, 신체기능 증진 훈련, 지각기술훈련, 정신사회적 지각훈련,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각종 지역사회활동 등을 통해 적응 능력을 키우고, 사회적 역할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며, 부적응 상태를 감소시켜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치료한다.

● 작업치료사 역시 환자의 능력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후에 환자의 기능에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관련 다른 전문가와 협조하여 함께 일하기도 한다.

근무환경

●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응급환자를 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야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병원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으며 주말에 근무하기도 한다.

● 물리치료사는 치료하는 동안 오랜 시간 서서 근무해야 하지만, 치료기계가 발달하면서 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체력적인 소모가 덜한 편이다. 작업치료사는 상대적으로 물리치료사에 비하여 신체적 체력소모는 적은 직종이다.

●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모두 비교적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환자와의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환자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직업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종이다.

되는 길

교육 및 훈련

—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2006년 5월 현재 31개의 3년제 대학과 23개의 4년제 대학교에서 물리치료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13

개 대학에서 대학원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은 상이하지만 주로 생리학, 해부학 등의 기초의학과목과 재활의학, 정형물리치료학, 도수치료, 운동치료학 등의 심화과목, 그리고 각 질환별 물리치료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학습한다.

— 작업치료사도 물리치료사와 마찬가지로 3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의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하고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2006년 현재, 26개의 3년제 전문대학(입학 정원 970명)과 15개의 4년제 대학(입학 정원 450명)에서 작업치료(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작업치료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생리학, 해부학, 병리학, 인체운동학 등의 기초의학 과목과 일상생활동작, 질환별 작업치료, 정신사회 작업치료, 근골격계 작업치료, 아동작업치료, 작업치료학 실습 등의 전공과목을 배우게 된다. 작업치료학과의 교과목은 기초과목에 있어서는 물리치료학과 상당부분 비슷하지만 전공과목은 일상생활과 사회복지가 가능하도록 환자를 돕는 것이 목적인만큼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재활치료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게 된다.

● **관련 학과** : 대학(3년제) 및 대학교의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등이 있다. 3년제 및 4년제 간에 특별한 차이점은 없으며 다만, 4년제의 경우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3년제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편입학을 해야 한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국가면허시험이 있다.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선 1년에 1회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대학 및 대학교에서 물리치료학 또는 작업치료과를 전공한 자 또는 외국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물리치료사는 병원 및 의원의 물리치료실, 재활원 및 종합복지관, 보건소, 특수학교, 노인재활시설, 스포츠구단 및 체육관련 시설, 의료관련 연구기관,

의약관련출판업체,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한다.

— 작업치료사는 병원 및 의원의 재활의학과, 재활병원, 정신병원, 장애인복지관, 노인재활시설, 치매센터, 발달장애아동센터, 특수학교, 한국장애인촉진공단 등에서 근무한다. 일반 개인의료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나 대학교 졸업자에 상관없이 채용하지만, 대형 병원인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취업은 교수 및 학과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이나 협회 등의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으로 이루어진다. 대학 재학 시의 임상실습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병원 및 의원에 취업한 후 경력에 따라 물리치료실 또는 작업치료실 실장까지 승진이 가능하며, 복지관, 보건소 및 시설은 시설의 장까지 승진할 수 있다. 일부는 2~3년간 병원에서 경험을 쌓은 후 다시 대학원에 진학해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한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에서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적성 및 흥미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업무를 수행하므로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환자는 물론이고 다른 의료 인력과도 원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분야는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전문 분야에서 신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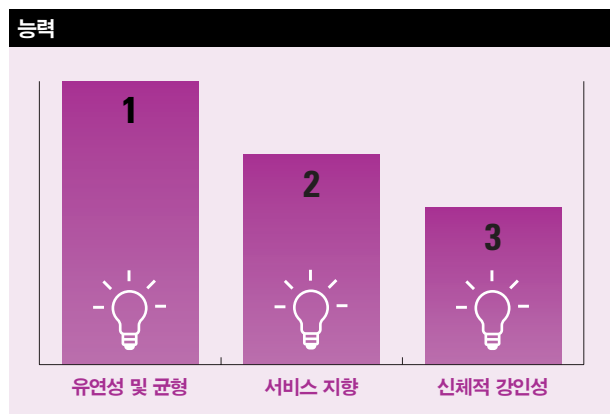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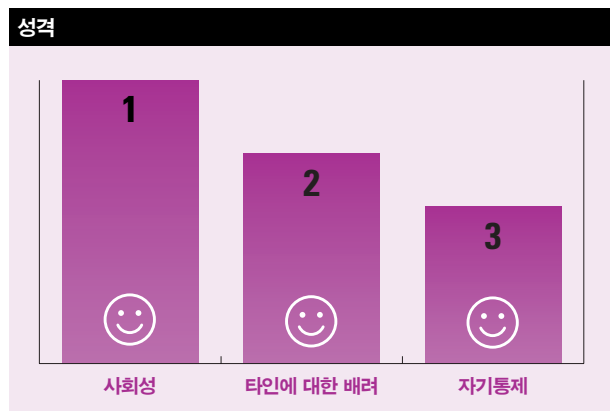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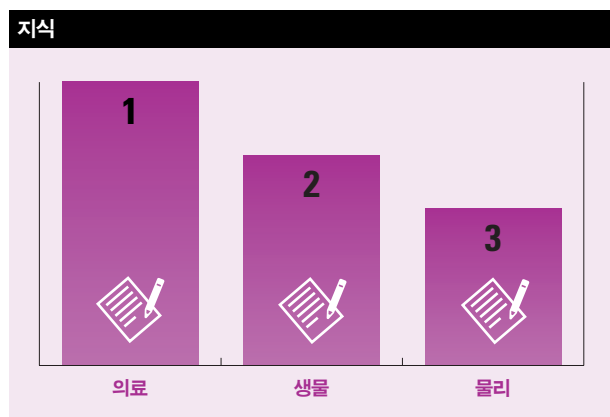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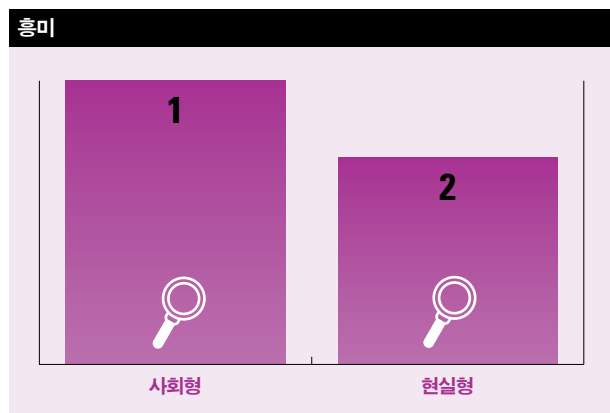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적성 및 흥미



● 물리치료사의 일자리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의 증가,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이 될 것이다.

—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산업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환경오염이 증가하여 만성질환,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발달로 이러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크게 감소되고 있는 반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요인은 물리치료사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주5일근무로 레저 및 스포츠산업이 발달하면서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외상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어 물리치료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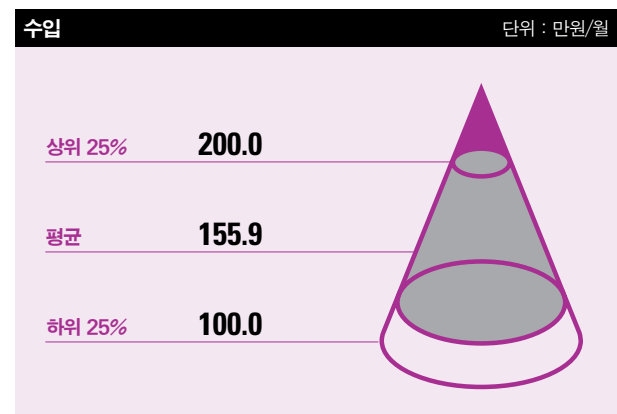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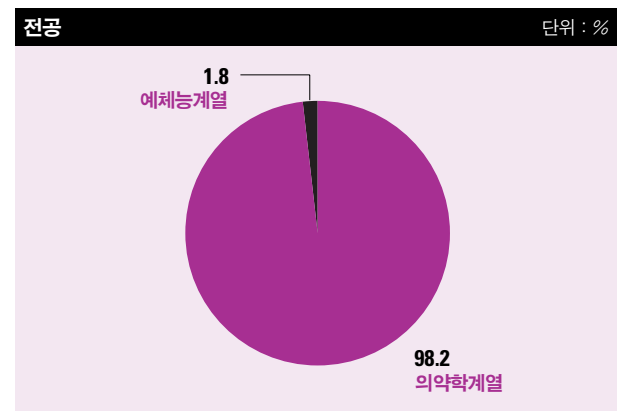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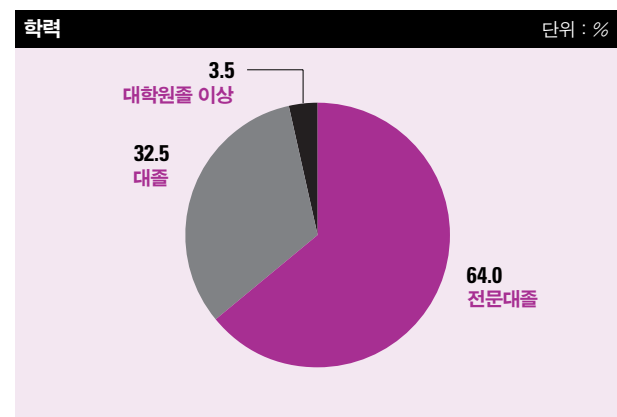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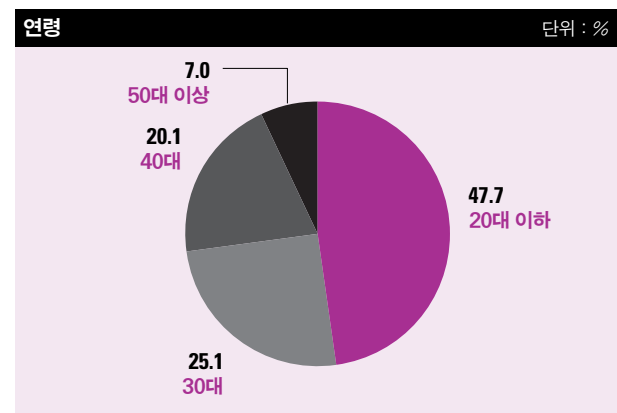
— 또한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부양 또는 요양이 가족만의 책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물리치료사의 수요를 더욱 늘릴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물리치료사 기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계를 이용한 치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치료사의 손으로 행하는 치료가 증가하고 있어 물리치료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스포츠 및 한방 등의 분야로 진출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물리치료사의 신규 배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초과공급으로 인한 입직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에 약 28,000여 명의 물리치료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2,800여 명 정도의 면허취득자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경우 이직률이 낮아 취업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경영상 인건비 절감을 위해 경력자보다는 신규 물리치료사의 고용을 선호하고 있어 경력 물리치료사의 경우 좀 더 치열한 취업 경쟁을 치

종사자 수 : 17,940명(물리치료사의 수취임)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작업치료사의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이다. 전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치매환자와 퇴행성질환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지능력 및 신체기능 저하를 방지하고 향상시키고자 많은 작업치료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그 외에도 국가복지정책의 강화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인력 수요가 기대된다.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고 초·중·고등학교법 시행령에 '특수학급 6학급당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1인을 둔다'는 배치기준이 마련됨으로써 2006년부터 치료교육교사가 선발·배치되었고, 향후 몇 년간은 추가적인 선발·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들 교사는 지역교육청 소속이 된다. 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작업치료사의 활동영역도 재활의학과에서 정신과, 복지관, 지역사회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 향후 몇 년간은 작업치료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취업이 비교적 쉬울 것이지만, 최근에 작업치료과를 개설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이 많이 늘었고, 한국보건 의료인국 가시험원의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의 응시자 및 합격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몇 년 후에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취업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보처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02)598-6587 www.kpta.co.kr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033)766-0616 www.kaot.org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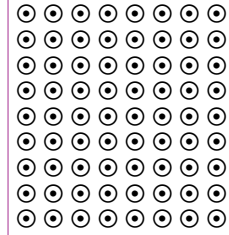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 031)440-9127 www.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02)705-6114 www.hira.or.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51 물리치료사

09

임상심리사



하는 일

- 임상심리사는 심리적 장애가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는 사람으로 심리치료사라고도 불린다.

- 이들은 환자의 인지, 정서 및 행동적인 심리상담을 주로 담당하며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약물치료는 할 수 없다.

- 임상심리사는 정신 및 행동장애, 청소년 비행 및 약물중독, 결혼이나 가정에서의 적응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한다. 반면에 상담전문가는 임상심리(임상심리전문가)보다 조금 덜 심각한 정서, 행동적 문제와 일반인들이 일시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나 직업 및 진로상담, 학업지도 및 대인관계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두 직업을 구분할 수 있으나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 임상심리사들은 심리평가, 심리치료, 연구, 자문, 강의, 실험실 실험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한다. 대학교, 병원, 진료소, 정신건강관련 연구소, 교도소, 정부기관의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자문, 사회 교육과 강연, 정신장애 예방프로그램의 운영, 법원, 학교, 사업체, 군대, 개인개업이나 집단 개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 임상심리사는 정신장애 및 사회 부적응 등의 여러 장애가 어떠한 심리적 원인 및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 인지 밝혀내기 위해 오랫동안 구축된 자료들과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한다. 또한 심리상담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심리상담을 수정하고, 정신병리의 진단을 위한 방법이나 도구 개발 등을 위해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심리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내담자들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지, 정서, 성격, 적성 등 심리건강 제반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진단하는데, 이때 면접 및

심리검사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중 심리평가 방법은 지능이나 인지적 기능, 정서적 상태, 증상, 성격의 특성 등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심리평가에는 한 개인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지능검사에서부터 성격검사, 신경심리검사, 행동관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심리평가는 단순히 심리검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닌 많은 경험과 매우 숙련된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 장애를 진단한 후 치료를 하는데, 장애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치료방법을 사용한다. 치료의 형태는 개인치료, 집단치료, 인본주의적 치료, 정신역동치료 등으로 다양하며 행동치료, 인지치료, 현실치료, 계슈탈트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방법을 통해 치료업무를 수행한다.

근무환경

- 임상심리사는 일반적으로 정규시간 동안 근무하나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내담자(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초과근무를 하기도 한다. 내담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하는 병원이나 상담실은 쾌적한 편이다.

-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통 정신과 의사, 간호사(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과 한 팀이 되어 근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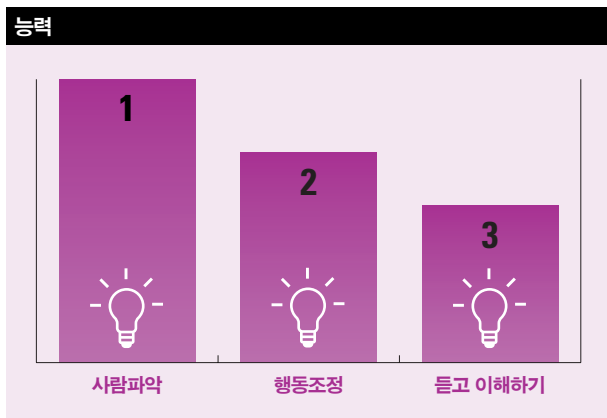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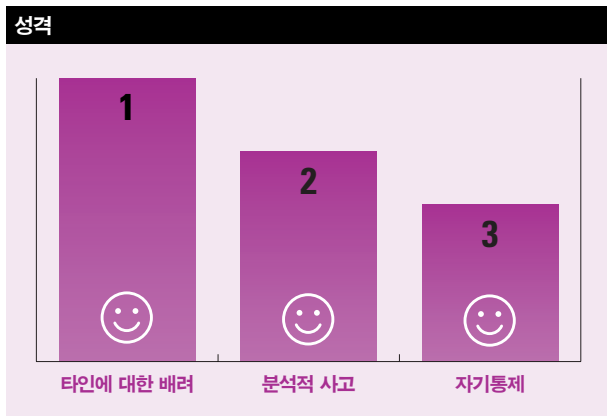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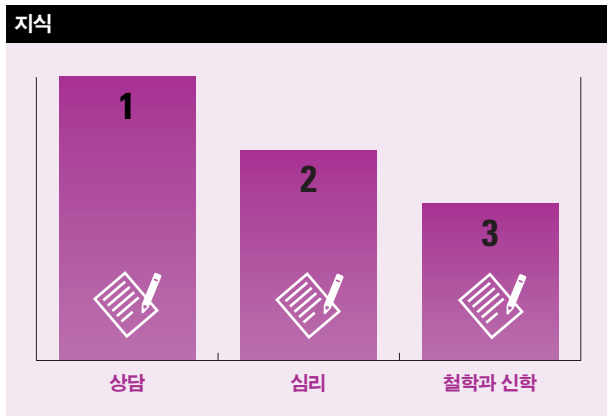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4년제 대학교의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임상심리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임상심리사관련 자격으로는 한국심리학회 의 임상심리전문가 자격,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임상심리



임상심리사

적성 및 흥미



사 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있다. 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는 개인의 심리치료뿐 아니라 심리 평가, 집단심리치료 및 재활치료 등 여러 분야를 배우게 된다. 학부에서는 심리학개론, 사회심리학, 성격심리, 인지심리, 심리통계, 실험설계법 등을 배우게 되며, 대학원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임상관련 공부를 하게 된다. 여러 근무처 중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자 한다면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 **관련 학과** : 대학교의 심리학과 등이 있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국가자격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및 2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1급 및 2급이 있고, 민간자격으로는 임상심리학회(임상심리전문가) 등이 있다. 병원, 사회복지기관, 국가기관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행정직 교육공무원 시험에서는 자격소지자의 경우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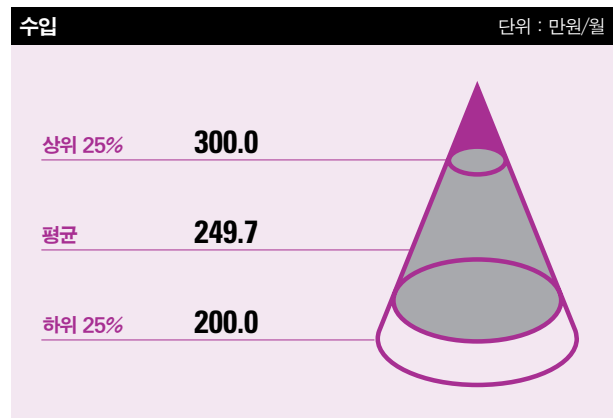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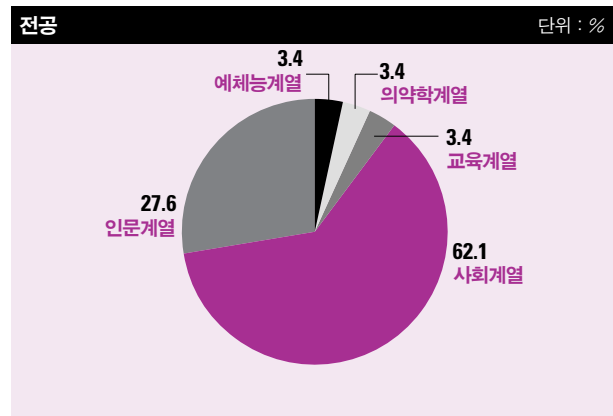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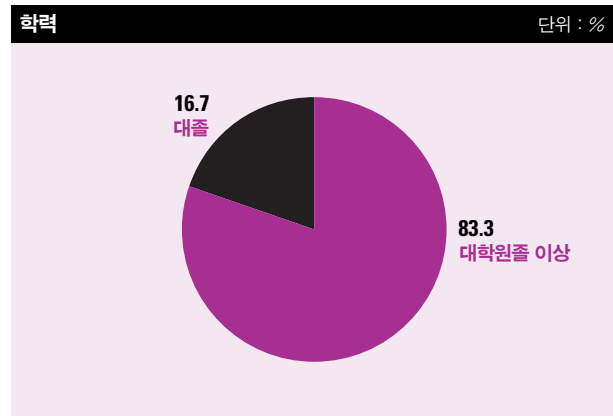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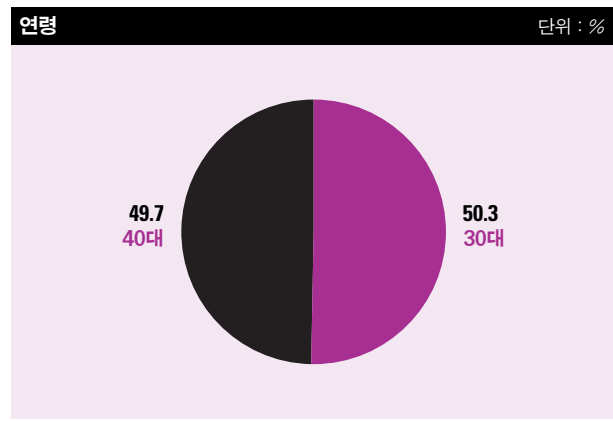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대학원의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정신과 전문의 수련기관인 병·의원 및 각종 시설 등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받게 된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5년간 정신보건 분야에서 근무하면 자동으로 1급으로 승급된다.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임상심리학관련과목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간의 수련을 받고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게 된다. 병원에서 수련하는 경우 실습시간의 1/4은 보건소나 재활시설에서 실습해야 하고, 각종 보건시설에서 수련 시에는 실습시간의 절반은 제후된 정신병원에서 수련해야 한다.

— 임상심리사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1급의 경우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실습

종사자 수 : 815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수련을 받거나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임상심리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2급의 경우에는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대학졸업자를 응시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임상심리사제도는 현재 확대개편하기 위한 개정작업중에 있다)

— 임상심리전문가 :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가 수여하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수련이 가능한 병원 및 각종 시설에서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감독 하에 3년(박사는 2년)의 수련을 받은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수련을 받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수련을 받는다. 이후 종합병원 및 개인의원에 취업공고를 통해 입직하게 된다. 개인병원에 종사하는 임상심리사는 보통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임상심리사는 병원, 개인 심리 상담센터, 사회복지기관, 국가기관, 알코올 상담 센터 등에서 근무한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평가나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통 임상심리사의 경력을 보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적인 면이 충족된다면 다른 임상심리사와 함께 심리센터를 공동으로 개설하거나 단독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적성 및 흥미

●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 및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며, 상담이 주요 업무인 만큼 자신의 생각 및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

임상심리사

다. 또한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담내용은 비밀로 해야 하며, 내담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인내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직업전망

향후 5년간 임상심리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의 증가, 이혼율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로 가족 및 아동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사회부적응자 및 범죄자가 늘어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상심리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정신병원이나 상담소에서부터 학교, 국가기관, 기업으로 점차 퍼져나가고 있다. 또한 개업하여 심리치료나 자문활동을 벌이고 있는 임상심리사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교도 분류직에서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였고 법원에서도 이혼상담을 위해 임상심리사를 채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임상심리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늘어가는 수요에 비해 대학과 수련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임상심리분야 전공자 수가 그리 많지 않으며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수련병원 실습을 위한 입직경쟁은 수련규정에 충족시키는 수련병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상심리사를 채용하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고, 임상심리분야의 대학교수의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심리연구소 개설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대되므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새로운 연구 및 치료기법을 숙지하며 습득하고자 노력한다면 임상심리사의 고용전망은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정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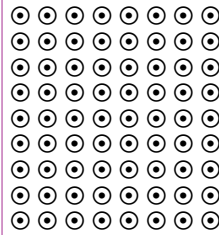
- 한국임상심리학회
☎ 02)887-4888 kcp.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1644-8000 www.hrdkorea.or.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52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10

임상병리사



하는 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있고 질병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질병은 치료하기에 앞서 질병의 유무, 질병의 종류 등에 대한 검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임상병리사이다. 최근에는 유전자를 통한 친자확인과 각종 질병 징후를 진단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임상병리사는 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를 위해 가검물 검사를 비롯하여 생리학적 검사 등 각종 의학적 검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사람으로 이들이 제시하는 각종 데이터는 의사가 환자의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인체의 기관, 혈액, 소변, 체액, 조직 등에 대해 실험기구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 및 실험한다. 최근에는 검사 및 분석 장비의 자동화 및 첨단화로 작업과정이 간편해 지고 있다.

임상병리사는 분야에 따라 진단혈액검사, 미생물 검사, 수혈의학검사, 일반 및 특수화학검사, 면역혈청검사와 진단분자유전검사 등을 한다. 이외에도 심전도검사, 뇌파검사, 심폐기능검사, 기초대사 검사, 근전도 검사 등의 생리학적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소량의 물질을 측정하는 핵의학검사 그리고 기생충검사도 실시한다. 그리고 수술에 필요한 혈액의 공급과 관리에 대한 업무도 수행한다.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상세히 살펴보면 혈액이나 체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등을 측정하고 환자의 고름이나 객담, 소변 및 대변, 척수액 등 인체에서 추출된 검출물이나 분비물, 배설물

을 통한 세균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검사용 시약을 조제한다. 그 후 혈액을 채혈하고, 이를 제조 및 조작하고 보존하게 된다. 결과가 나오면 검사 및 실험의 분석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의사가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약회사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실험실에서 약물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기도 하고 약물의 치료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관련된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병리사는 동물의 세포에서 나오는 세균 및 기생충을 검사한다.

근무환경

임상병리사는 청결하고 온도 및 습도가 적절한 병원이나 실험실 내에서 근무하나 업무수행 시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화학약품에 노출될 수도 있는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환자들의 분비물이나 배설물을 이용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악취나 더러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필요시 소독 가운 및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환기장치를 가동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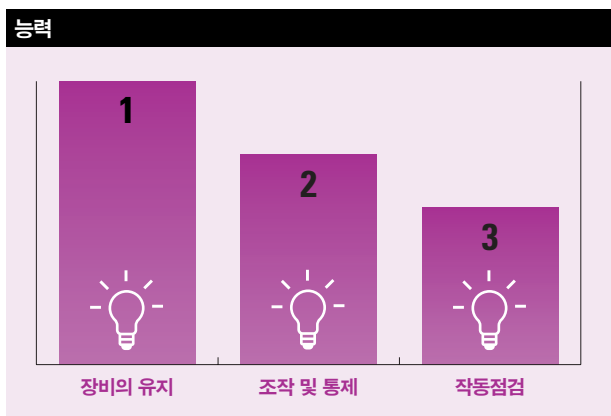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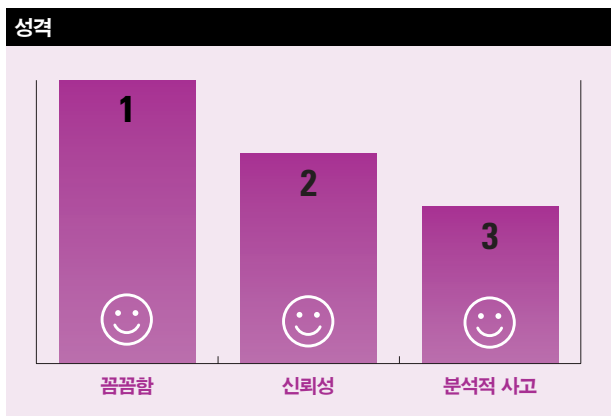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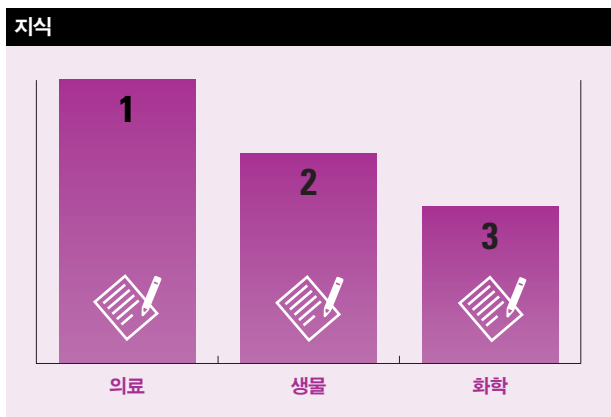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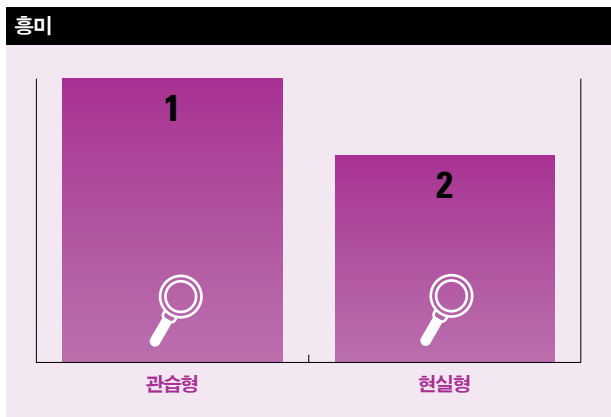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의 경우 응급환자를 위해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한다. 모든 검사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결과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되는 길

교육 및 훈련 :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하고 매년 1회 시행되는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적성 및 흥미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006년 현재 총 8개의 대학교에, 전문대학의 경우 23개의 대학에 임상병리과가 개설·운영되고 있다. 임상병리학이 기본적인 자연과학, 기초의학, 생명과학이 합쳐진 만큼 교과과정에는 화학, 물리학, 생물학의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여기에는 면역화학, 유전공학, 혈액학, 임상미생물학, 조직학, 진단면역학, DNA진단학, 세포배양, 핵의학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3학년 혹은 4학년 학기 중에 병원에서 임상실습이 이루어진다.

● **관련 학과** : 전문대학(3년제) 및 대학교의 임상병리과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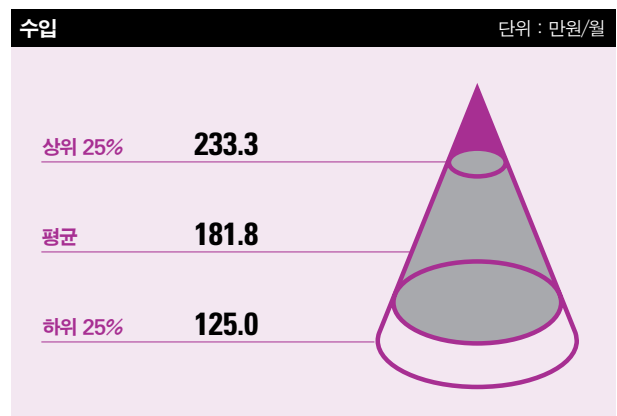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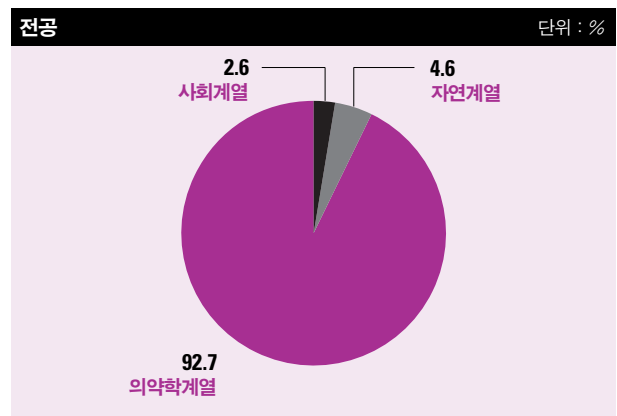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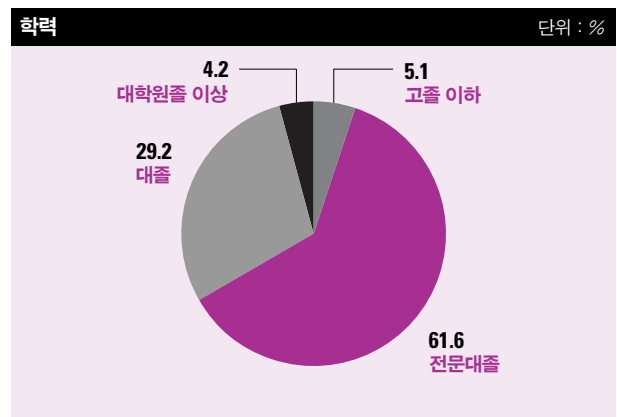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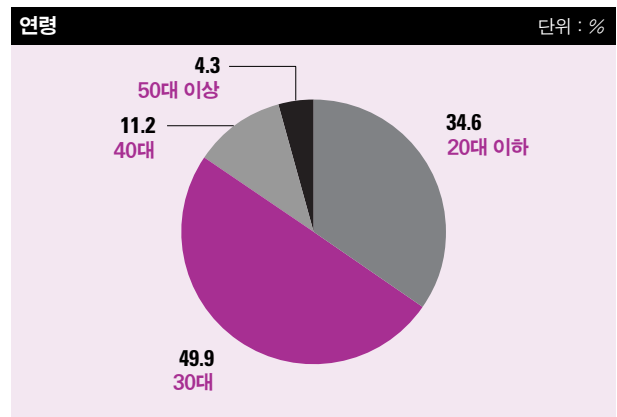
● **관련 자격 및 면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면허시험이 있다. 3년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의 임상병리과를 졸업하고 임상병리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이들은 보통 의료관련 잡지 및 신문, 인터넷사이트의 채용공고, 협회추천 등을 통해 입직하거나 학교 선·후배, 교수 등의 추천을 통해 취업한다. 보건소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보건원, 국·공립 동물원 등에 취업하기 위해선 보건의료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상병리사는 주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많이 진출한다.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해부조직병리과, 핵의학과, 특수검사실, 응급검사실, 건강관리과 등 여러 부서에서 활동한다. 개인의원, 전문임상검사센터, 의료관련 실험실 및 연구소, 의료단체, 유전공학연구소, 제약회사의 연구실, 검사장비나 진단시약관련 업체에도 진출한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일정기간 근무하고 나면 병원의 경우 승진체계에 따라 승진을 하며 보직으로 주임병리사, 수석병리사, 검사실장 등으로 승진할 수 있다. 학사학위 취득 후 임상병리학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지식을 더욱 넓힐 수도 있으며, 학위 취득 후 관련 연구소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대학 교수로 활동할 수 있다.

종사자 수 : 17,487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적성 및 흥미

● 정밀한 실험기구를 이용해 실험 및 실습을 하고, 검사의 결과가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업무 수행에 있어 침착하고 꼼꼼해야 하며, 분석적인 사고력, 그리고 책임감 또한 요구된다. 또한 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끈기도 있어야 한다. 미세한 세포 및 미생물 등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색맹이어선 안 되며 이외에도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임상병리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유전자를 통한 친자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질병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법의학관련 검사, 체대혈관련 실험실, 생명보험회사의 심사업무 등에서도 향후 임상병리사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 그러나 의료장비나 기기가 점점 자동화, 첨단화 되면서 임상병리사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검사업무만 수행하는 수탁검사기관에 임상병리검사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의 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일자리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병원에서도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임상병리 인력만으로도 증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임상병리사의 신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매년 1,400~1,600여 명의 신규 면허취득자가 공급되는 등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임상병리과의 정원이 늘어날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임상병리사의 취업경쟁

임상병리사

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무조건이 양호하지 않은 일부 개인 병·의원에서는 이·전직에 의한 대체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검사방법이 발달하고, DNA관련검사, 단백질검사 등 특수한 검사 분야가 새롭게 개발 및 확대되면서 세포유전학, 분자유전학이나 생리학적 검사 분야가 임상병리분야에 점차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어 임상병리사의 수요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건강진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검진센터에서의 수요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병리검사를 수탁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검사센터에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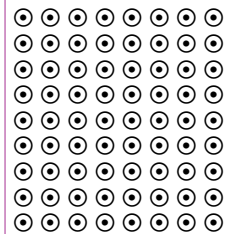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02)3291-5435 www.kamt.or.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 031)440-9127 www.mohw.go.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61 임상병리사

11

방사선사



하는 일

- 방사선사는 신체 내부기관의 질병, 장애의 진단을 위해 방사선 물질과 관련한 각종 방사선 장비를 조작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방사선사는 일반적으로 엑스레이검사, 정밀한 신체 내부검사를 위한 자기공명촬영(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검사나 전산화단층촬영(CT : Computed Tomography)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하는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해 암치료를 하는 치료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과), 그리고 침단의 기술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진단은 물론 갑상선종과 같은 일부 암을 치료하는 핵의학과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각각의 업무에 따라 방사선사는 진단방사선사, 치료방사선사, 핵의학(기술자)방사선사로 나누어진다.

- 진단방사선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X-ray검사, CT검사, MRI검사, 초음파검사, 유방검사 등을 수행하고 조영술, 확장술, 삽입술, 제거술 등 중재적 시술을 한다.

- 치료방사선사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모의치료, 치료계획수립, 방사선치료 등을 수행한다.

- 핵의학(기술자)방사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생리·해부학적 검사와 평가 및 치료를 수행한다.

- 최근에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즉, 환자의 상태를 촬영·검사한 필름을 수 초 만에 컴퓨터 영상으로 띄워 필름 없이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의료영상의 보

관 및 기록 업무가 편리해지는 등 방사선사의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시스템이 보급되지 못한 의원에서는 촬영이 끝난 후에 방사선 필름을 직접 현상한다.

- 이외에도 방사선사는 장비의 사소한 고장을 수리하기도 하며, 방사선 촬영 결과를 정리 및 분석하여 보고서를 의사에게 제공하고, 치료기록을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직급에 따라서 업무가 다소 달라지는데 높은 직위로 승진할수록 방사선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신규 방사선사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근무환경

- 보통 정규 근무시간에 근무하나 중·대형병원의 경우 응급환자를 위해 당직을 서기도 한다. 개인의원에 고용된 방사선사는 방사선 업무 이외의 행정 및 기타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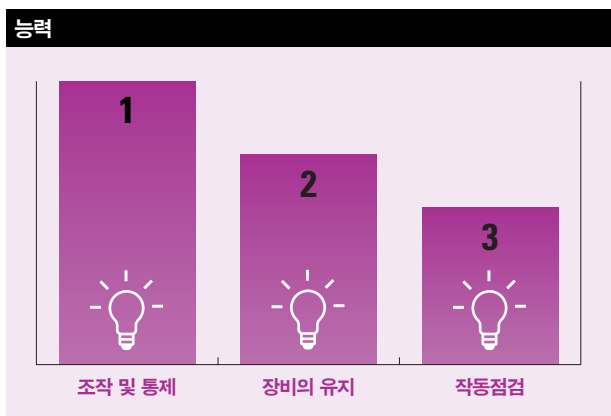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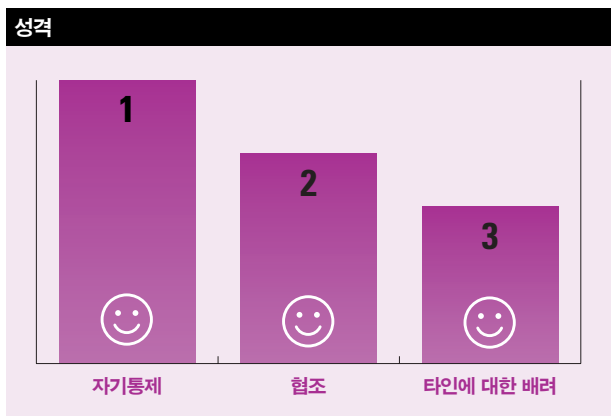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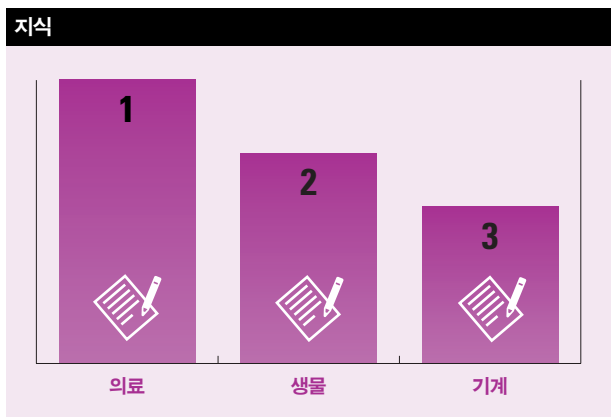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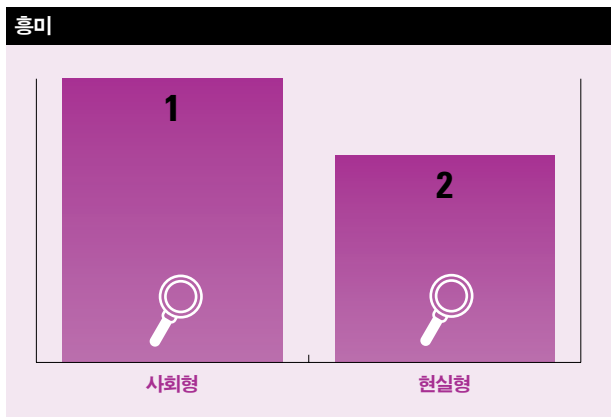
- 방사선사는 보통 병·의원의 방사선실에서 근무한다. 신체적으로 힘든 일은 없으나, 방사선 피폭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며 업무 시 피폭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항상 휴대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6~12개월에 한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방사선학을 전공한 후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006년 현재 방사선과는 18개의 3년제 전문대학과 12개의 4년제 대학에서 개설 및 운영되고 있다. 방사선학을 전공하면 인체의 조직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

방사선사

적성 및 흥미



해 질병의 검사,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체해부학 및 생리학, 병리학 등의 기초의학이론과, 방사선이 인체 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의 물리적 현상 등을 연구하기 위한 방사선치료학, 방사선물리학, 방사선생물학, 핵의학기술학, 방사선 측정 및 방어, 관리학, 진료영상기기관리학, 의료영상판독, 의료초음파공학을 임상실습과 더불어 학습하게 된다.

● **관련 학과** : 전문대학(3년제) 및 대학교의 방사선(학)과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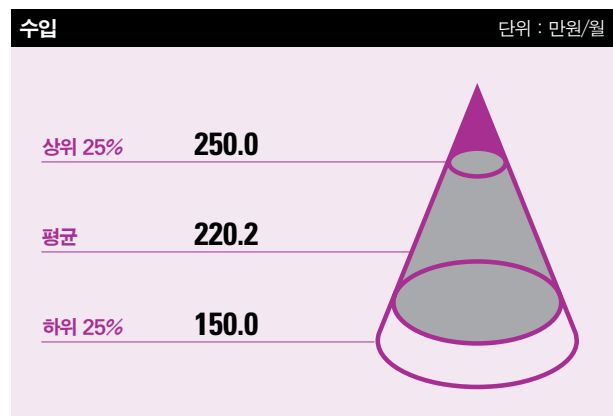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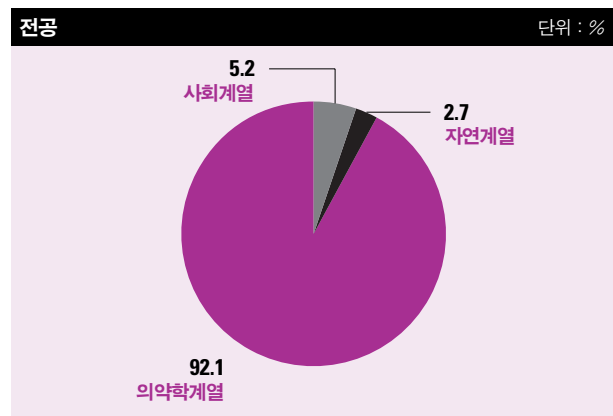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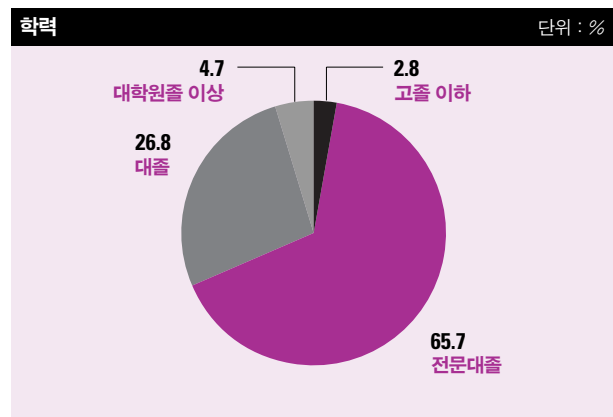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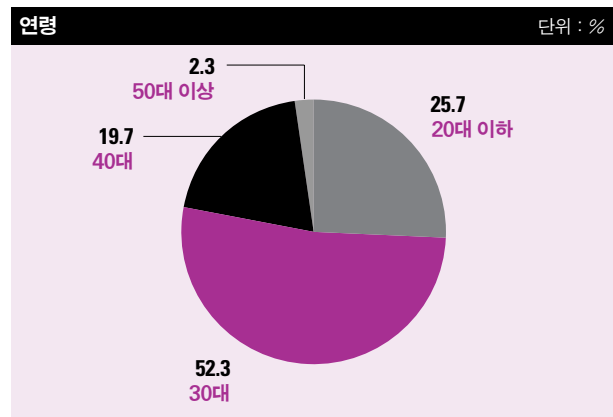
● **관련 자격 및 면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방사선사 국가면허시험이 있다. 3년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의 방사선(학)과를 졸업한 후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면허를 취득하면 방사선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모두 합격해야 한다. 이외에도 방사선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및 감독면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 등을 취득할 수 있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방사선사는 학교의 선·후배나 교수의 추천, 관련 잡지 및 신문공고, 협회 및 인터넷상의 채용공고를 통해 종합 및 대학병원, 개인의원, 치과병·의원 등에 취업한다. 또한 면허 취득 후 공무원 시험을 통해 보건소에 취업할 수도 있으나 매년 그 인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각종 의료기관 이외에도 군 의정장교, 방사선동위원소 이용 분야의 산업체, 의료기기업체(연구, 개발, 영업), 비파괴검사 기술 분야의 산업체, 각 대학의 교수, 보건연구직 및 방사선의료장비회사에도 진출할 수 있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병원의 규모에 따라 승진체계는 다르나 일반적으로 방사선사는 방사선팀 또는 방사선실의 팀장 및 실장까지 승진한다. 방사선사로 활동하면서 대학원에 입학하여 관련 분야의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대학교수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방사선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중에는 1년에 8시간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종사자 수 : 13,938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적성 및 흥미

● 방사선사는 물리학, 생물학 및 수학 등의 자연과학 분야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검사의 오류로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 필요하다. 방사선 기계는 매우 고가이면서도 위험한 기계로 방사선 피폭 관리에 아주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방사선사는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기계적 능력, 주의력, 정확성 및 침착성을 두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PACS의 확대에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3차원 영상으로 편집하는 기술 및 이에 수반하는 창의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방사선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기기 및 의학의 발달로 점차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고, 웰빙시대에 맞추어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보건의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에 따라 암 등 다양한 병들이 등장하고 있어 정확한 치료를 위한 진단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또한 과거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사고가 전환되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위한 일반인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한 건강검진센터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검사는 고객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촬영이 불가피하고 기계화 및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력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치료를 위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여성 방사선사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사

● 매년 신규 방사선 면허 취득자 수가 1,400~1,600명 정도 늘고 있어 입직하기 위해 다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 대학의 인기학과 증설에 따른 과잉배출로 임금감소 현상이 심각하여 대한방사선협회 및 각 대학은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다.

●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보수 및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이·전직하는 사람이 많아 대체수요로 인한 고용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PACS 사용의 확산에 따라 영상편집 기술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입직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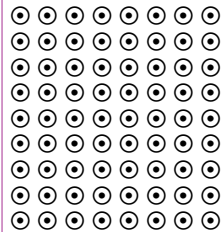
관련 정보처

- 대한방사선사협회
☎ 02)576-6524 www.krta.or.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 031)440-9127 www.mohw.go.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62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하는 일

●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예방치과처치·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며,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 치과위생사는 치과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처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충치의 예방을 위하여 불소도포를 하고, 치아의 흠을 메우며, 스케일링(치면세마)과 지속적 구강관리를 통해 치주질환의 예방과 개개인의 구강건강 유지를 돕는 업무를 한다. 또한 개인별 구강질환이나 구강상태에 적합한 칫솔의 선택과 칫솔질 방법, 식이조절 등에 대해 교육한다. 이외에도 환자의 구강건강상태를 기록하고 진료기록을 관리하며,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결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병원·가정 및 학교에서 개인 또는 대중을 상대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며, 학교·보건소 등에서 집단구강검사·칫솔질 교육·모자구강보건교육·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치면 세마(스케일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치과 진료기구 및 장비의 소독·배치와 관리를 담당하며, 병원관리·의료보험청구·기타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에는 치과의사와의 진료협조 업무도 있다. 이들은 구강상태를 관찰하고,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구강 내 방사선 촬영업무를 수행하며, 비교적 가벼운 치과처치에서 복잡한 구강외과 수술 시의 진료협조에 이르기까지 진료실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환경

● 병·의원의 규모와 체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무시간은 대개 1일 평균 8~9시간 정도이며, 일부 야간진료를 시행하는 병·의원에서는 교대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출장을 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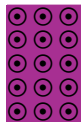
● 병원균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의료기구에서 방출되는 광선이나 이물질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과 방사선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대학 이상에서 치위생학을 전공한 후 치과위생사면허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면 된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치위생학과에서는 구강위생학, 구강보건학, 구강해부학, 구강조직학, 치과약리학, 구강병리학, 구강생리학, 치아형태학, 감염방지, 인체해부, 구강외과학, 치과보존학, 치주학, 구강내과학 등의 교과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한 각 영역별 처치 및 예방과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임상 실습을 3~4학년 과정에 병행하여 이수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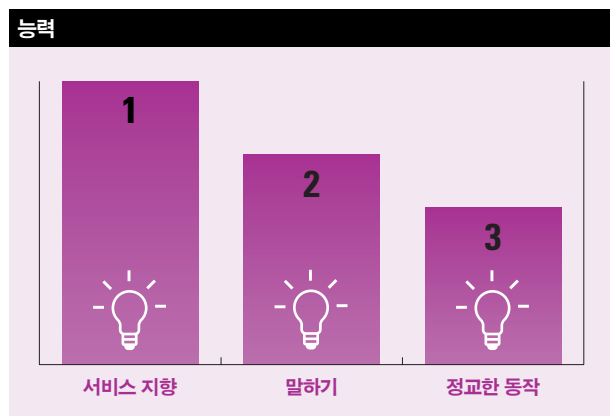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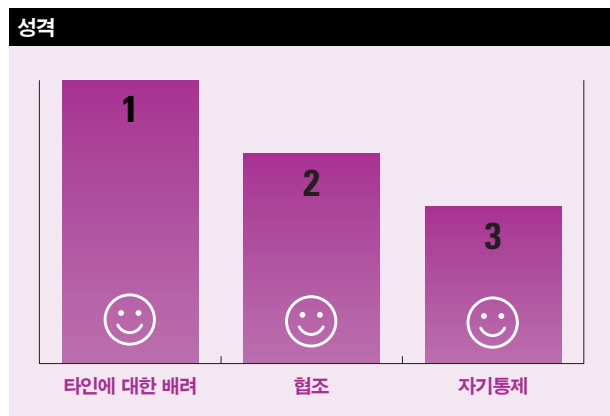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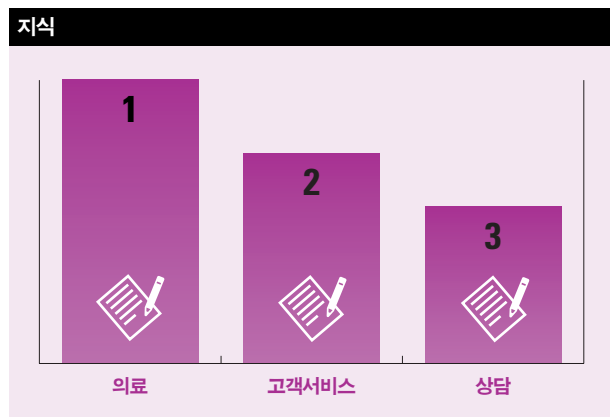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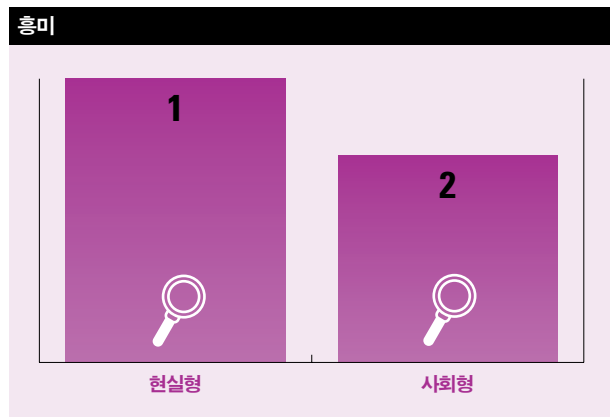
● **관련 학과** : 대학교와 3년제 전문대학의 치위생학과, 치위생과 등이 있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치과위생사면허 국가시험이 있다.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하며, 연 1회 시행되고 있는 이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치과위생사

적성 및 흥미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면허 취득 후 출신대학교의 추천이나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신문 및 인터넷 등의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으로 종합병원·치과병원 및 개인치과의원 등으로 취업한다. 치과병원의 경우 학교에서 직접 취업특강을 개최하기도 하므로 이런 행사에 참여해 취업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다. 의료기술직으로 공무원 시험(9급)에 합격하면 보건소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구강위생관련용품 제조 및 판매회사·민간구강보건단체·구강보건연구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또한 4년제 치위생학을 전공한 남성의 경우 군입대 시 의무장교 및 치무병·의무병으로의 지원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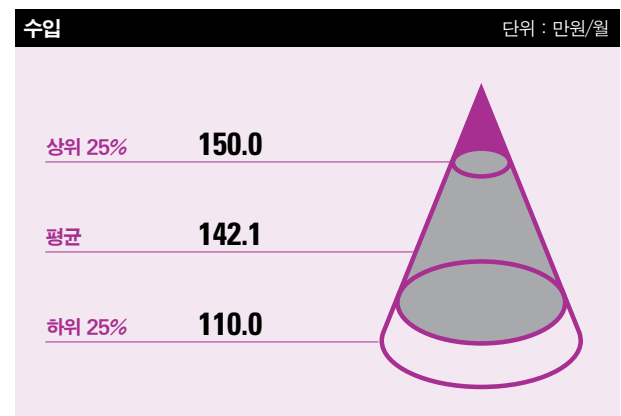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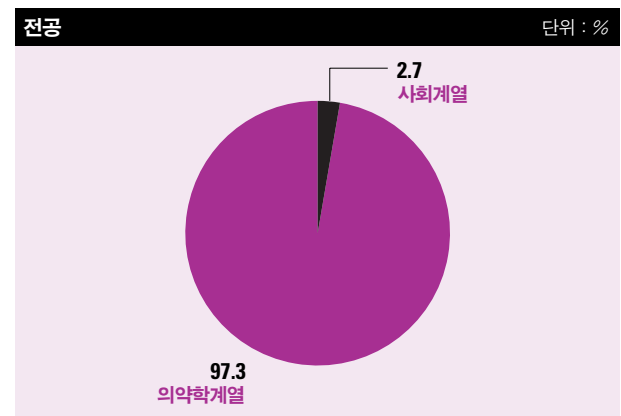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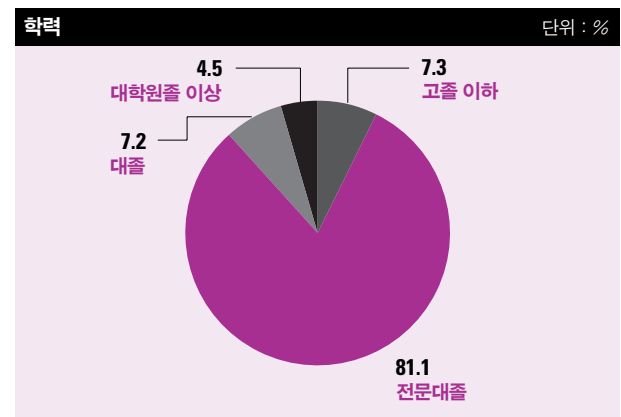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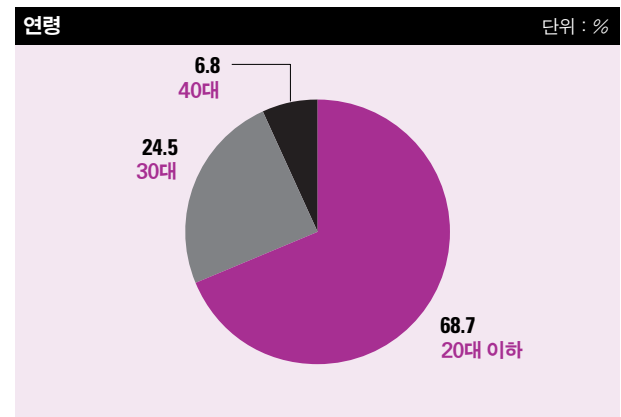
● **승진 및 경력개발** : 입직한 후 협회나 관련기관에서 주최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치과병(의)원의 경우 수석치과위생사·치과위생실장·진료부장·팀장 등 기관에 따른 직책 명으로 승진하게 된다. 전문지식과 임상능력을 겸비한 경력자의 경우 전문치과위생사로서 치주·교정·임플란트·구강외과 등의 전문치과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코디네이터 또는 덴탈매니저로서 병원관리와 경영을 담당하기도 한다.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공무원(의료기술직)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직렬별로 3·4급까지 승진이 가능하다.

적성 및 흥미

● 주된 업무가 좁은 구강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므로 손놀림이 섬세하고 치밀한 성격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하다. 또한 스케일링 등을 비롯하여 일부 치료 시 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거부감 없이 기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정신이 필요하며, 환자 및 기타 직원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종사자 수 : 21,828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치과위생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학의 발달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에 요구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날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구강보건분야에 대한 관심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

● 또한 치료 위주의 진료에서 예방 위주의 진료로 국가의 구강보건정책이 전환되면서 구강질환의 예방처치자와 구강보건교육 전문가인 치과위생사의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치과 병·의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치과위생사의 수요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치과 병·의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6
치과병원	96	103	108	124	127	
치과의원	11,157	11,556	12,083	12,548	12,810	

출처 :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연도

● 한편 2006년 1월말 기준으로 치과위생사 면허취득자는 총 30,782명으로 매년 2,500여 명이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치과의사 등 구강보건인력 수급 및 관리체계 개발』(2003)에 따르면 2002년에 이미 치과위생사의 초과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의 치위생(학)과의 신·증설로 인한 치과위생사의 인력증가 속도가 치과의사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고용수급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협회 및 관련 단체에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치과 임상분야에서의 업무확장, 보건소 및 학교구강보건교육실 등 공공기관에서의 공무원직 확대,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가로의 해외취업 방안 등 다각

치과위생사

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활동영역의 확대로 인한 고용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정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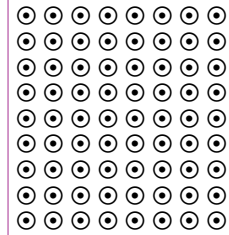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02)2236-0914 www.kdha.or.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 031)440-9127 www.mohw.go.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63 치과위생사

13

치과기공사



하는 일

-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의 계획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 충전물 또는 부정교합 치료를 위한 교정장치 등 많은 종류의 치과보철물 및 교정장치물을 제작, 가공하고 수리하는 사람이다.

- 치과기공분야는 최근 정교함에 아름다움까지 접목되고 있는 분야로 발돋움하고 있다. 사람의 입 안에 보철물이 정확하게 장착되어야 하고, 편안한 기능성이 갖춰진 의치 등을 제작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 치과기공 업무는 제작 재료의 종류나 제작 형태에 따라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된 업무는 인공적인 재료를 가지고 보철물인 의치를 만드는 것이다. 보철물은 치관 및 가공치아(crown & bridge), 부분틀니(partial denture), 전체틀니(complete denture), 매식의치(implant) 및 도재치아(porcelain) 등의 분야로 나누어진다.

- 치과기공사는 우선 보철물 제작을 위해 치과 병·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환자의 치아모형을 분석하고 설계한다. 치과 진료실로부터 전달된 작업모형을 확인하거나 채득된 인상을 토대로 여기에 석고가루를 붓고 진동기를 사용하여 모형을 제작한다. 조각도, 몰딩기, 전동기, 도재분말, 납땀기 등의 공구 및 재료를 이용하여 조각, 몰딩(주조), 컵투어링, 도재 작업 등의 방법을 통해 도재인레이 및 관교의 치(크라운&브리지), 도재관, 국소의치, 총의치, 어태치먼트, 교정장치 등을 대부분 수작업으로 제작한다. 이렇게 제작된 보철물을 정교하게 연마하고 가공하여 완성시킨 다음, 최종적으로 이 완성품이 작업 모형에 맞도록 정확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 보철물의 모든 제작과정이 종료된다. 치과보철물은 대부분 입안에 장착하고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씹을 때 보철물이

힘을 받게 되므로, 재료의 특성과 적합한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 치과기공실이나 치과기공소에서 보철물의 종류에 따라 치과기공 업무가 세분화되고 있어 전문적으로 한 분야만 담당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근무환경

- 환자의 치료시기에 맞춰 작업물을 완성하여야 하거나 보철물의 제작기간이 촉박하고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초과근무를 한다.

- 의자에 앉은 채로 장시간에 걸쳐 정적이고 정교하며 반복적인 수작업을 해야 하는 정밀작업인 만큼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근육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각종 금속과 화학약품 사용 시 작업자의 부주의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치과기공소 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로 작업 공간이 협소한 편이며, 치과기공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이 심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장비와 시설의 개선으로 작업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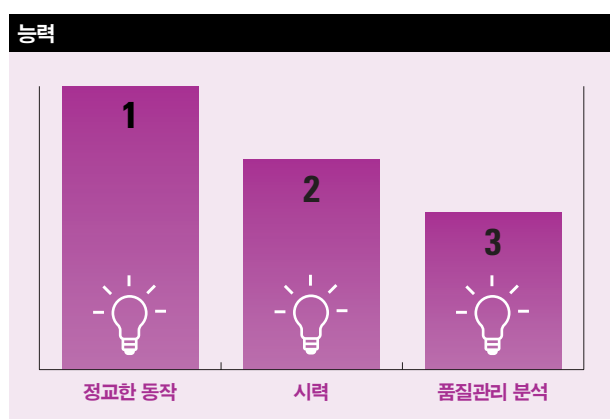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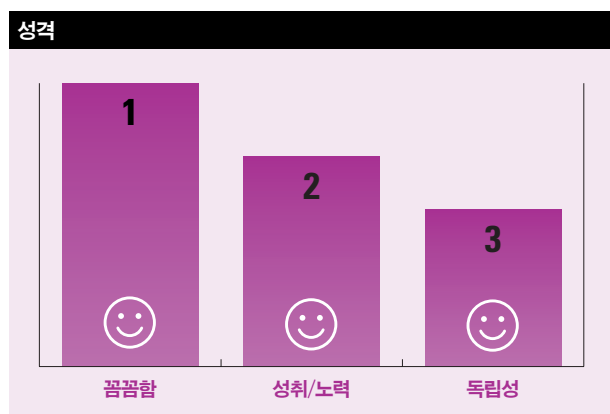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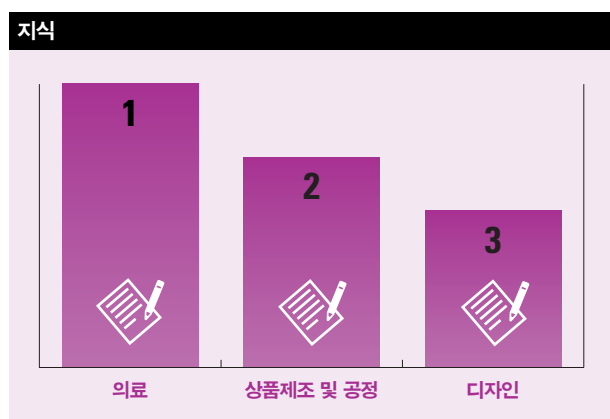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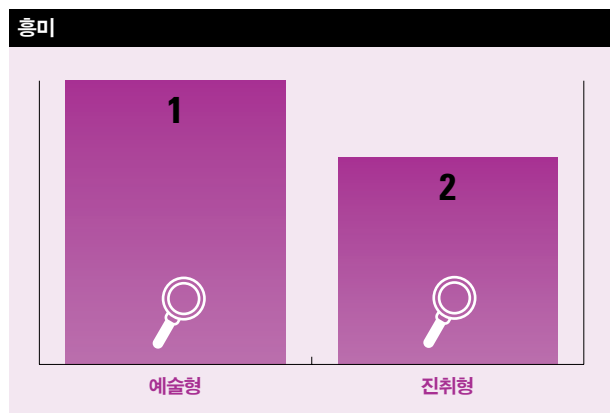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치과기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치기공학을 전공하고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006년 현재 전국에 총 20개의 대학에 치기공과 및 치기공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2개는 4년제 대학교에, 나머지 18개는 3년제 대학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치과기공사는 기본적으로 치과의료 전반



치과기공사

적성 및 흥미



의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치과기공물의 제작 및 수리에 관한 기술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치기공학을 전공하면 기본적으로 치아 형태 및 기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구강생리학, 구강해부학, 구강병리학, 치아형태학 등의 기초 분야와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을 공부하는 치과재료학, 의치기공학, 교정기공학, 충전기공학 등의 치기공의 응용 분야를 공부하게 된다.

● **관련 학과** : 3년제 대학의 치기공과 및 4년제 대학교의 치기공학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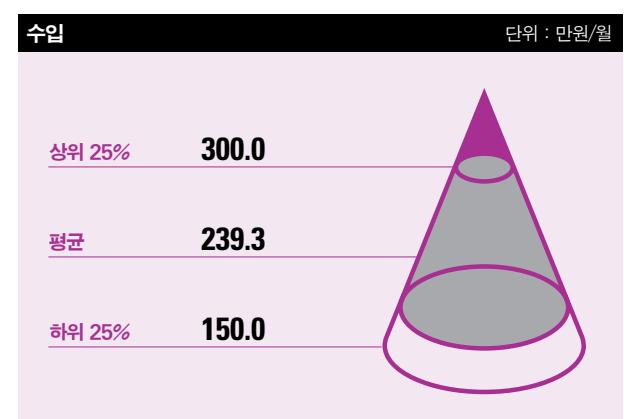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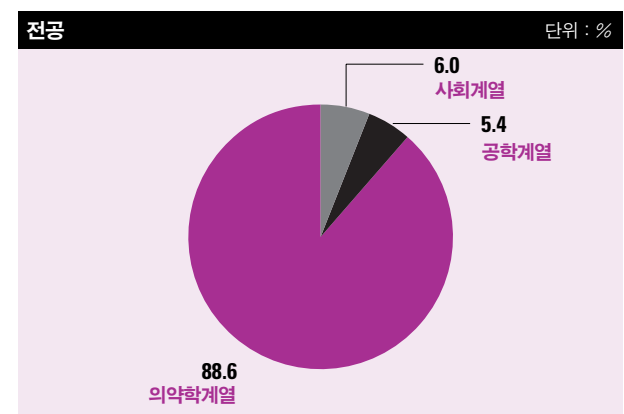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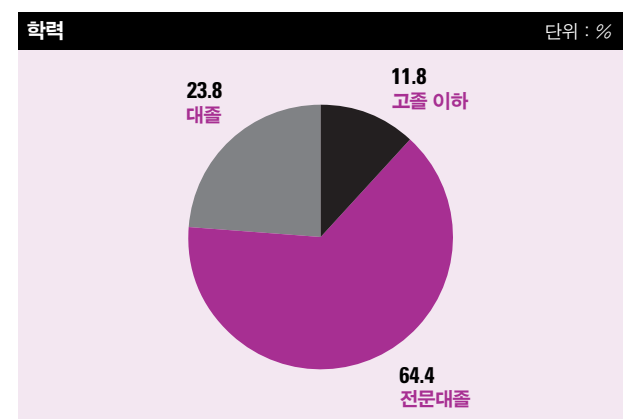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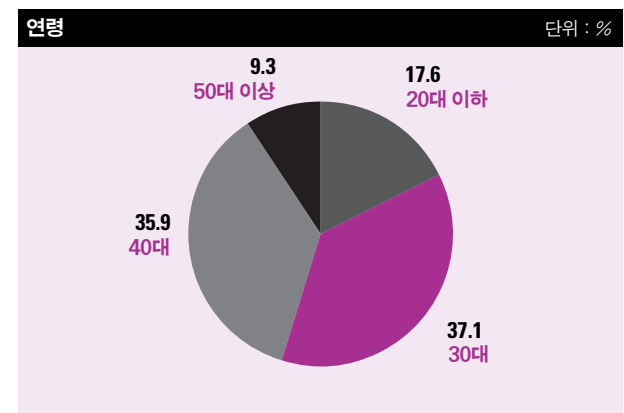
● **관련 자격 및 면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치과기공사 국가면허시험이 있다. 3년제 대학 이상의 치기공과를 졸업하고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으며 2005년 현재까지 면허취득자 수는 총 20,523명이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치과기공사는 보통 학교추천, 협회나 관련 홈페이지 및 신문 채용공고 등을 통해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치과병·의원이나 치과기공소에 취업하거나 치과기공소를 개업한다. 이외에 치과재료업체, 치과기자체 관련업체, 신소재개발연구소 등에도 진출할 수 있으며, 해외로 진출하기도 한다. 입직 후 3년 정도까지는 숙련기간으로 저임금 및 장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며, 숙련기간이 지나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치과기공소를 개업하기도 한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소규모의 협소한 치과기공소가 많기 때문에 보통 경력에 따라 임금 인상의 형태로 승진이 이루어지며, 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치과기공실장까지 승진이 가능하다. 한편 치과기공물 제작용 장비들이 기계화 되면서 새로 도입되는 장비 및 재료,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는 보수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4년 과정의 치기공학을 전공한 경우라면 관련 분야의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대학 교수 및 연구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종사자 수 : 12,773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적성 및 흥미

● 치과보철물은 각 개인의 악궁 및 치아형태에 따라 달리 제작되며, 치과기공물 제작 시에는 정확성 및 정교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정밀기계 및 재료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작업에 열중해야 하기 때문에 끈기 있고 차분하게 일을 마무리하려는 성격의 사람에게 적당한 직업이다. 또한 기계 및 장비를 능숙하게 잘 다루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미적인 감각이 있다면 도움이 되며, 시력 또한 좋아야 한다. 이밖에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며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치과기공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식생활 습관이 변화되면서 치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예방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점차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치아를 심미적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고 치아교정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아 관련 보철물을 제작하는 치과기공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들의 일자리는 치과의원의 개원과 치과 의사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치과의원 및 치과 의사 수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치과기공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치과기공소가 점차 노동집약적인 소규모 작업장에서 탈피하여 중·대형규모로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개업 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적은 투자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개업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치과기공사의 일자리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작업이 자동화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작업이 요구되는 분



치과기공사

야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의 고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 현재 추진 중인 노인 틀니의 보험화 등이 현실화될 경우 치과이용자 수를 증가시켜 치과기공사의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타 의료기사와는 달리 치과기공사는 자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로 입직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보건산업진흥원(2003)의 『구강보건인력 수급 및 관리체계 개발』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치과기공사 인력 실태 및 수급관리』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0년 상반기부터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다. 또 매년 신규 면허취득자 수가 1,200~1,300명으로 나타나 공급과잉현상에 따른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력을 쌓은 후 개업을 하거나 경력개발을 목적으로 이·전직하는 비율이 높아 이로 인한 일자리 기회는 많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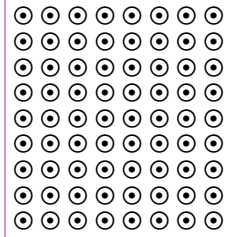
관련 정보처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02)2253-2800 www.kdtech.or.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 031)440-9127 www.mohw.go.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64 치과기공사

안경사



하는 일

● 안경사는 고객에게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조제 및 판매하여 사람들의 손상된 시력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 안경이 단순한 시력보정용의 기능이 아닌 하나의 패션 항목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안경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안경사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다.

● 안경사는 고객의 정확한 교정도수를 측정하고 시력에 맞는 렌즈를 선택한 후 고객의 얼굴 형태, 눈의 크기, 두 눈동자간의 거리, 각막의 두께 및 코의 높이, 테의 색상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얼굴과 눈에 맞는 크기와 모양의 안경테 및 콘택트렌즈를 추천해준다. 안경사는 개인의 굴절 이상과 착용자의 작업환경, 그리고 사용용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적의 렌즈를 선택해 주어야 한다.

● 안경 조제 시 안경렌즈 및 테를 선정한 후 테에 맞추어 렌즈를 갈아서 끼우고 완성된 렌즈를 검사한 후 안경테를 핏팅(fitting)한다. 핏팅 시에는 전경각, 코벌림각, 조정 가능한 패드 등의 브릿지와 다리부의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 렌즈 및 안경테가 정해지면 자동 제조기계를 이용하여 안경을 제조한다. 관련 데이터를 장비에 입력하여 안경이 제조되면 안경사는 렌즈를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완성된 안경을 고객에게 어울리도록 조정하여 준 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세척 및 착용방법을 설명하고 시력보호를 위한 눈 관리법이나 시력보조구에 관하여 조언을 한다. 판매 이후에도 고객의 지속적인 시력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자를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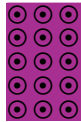
근무환경

● 안경사는 보통 밝은 조명과 환기가 잘 되는 쾌적한 실내에서 근무한다. 그러나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하루 종일 서 있는 경우가 많아 다리 및 허리에 무리가 올 수도 있다.

● 대부분의 안경원은 소규모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1~2명의 안경사가 근무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안경원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교대근무 없이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주일에 1일 정도만 휴식을 취하고 있어 근무조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나 점차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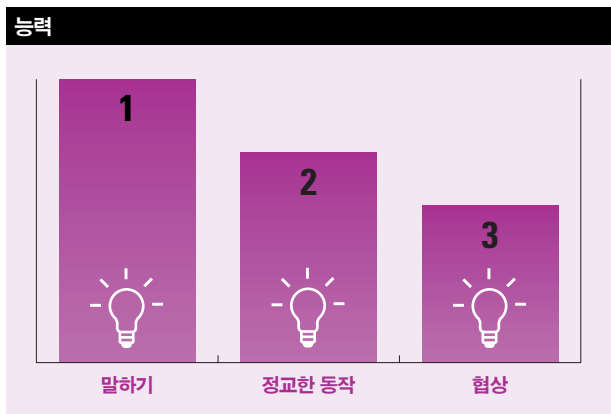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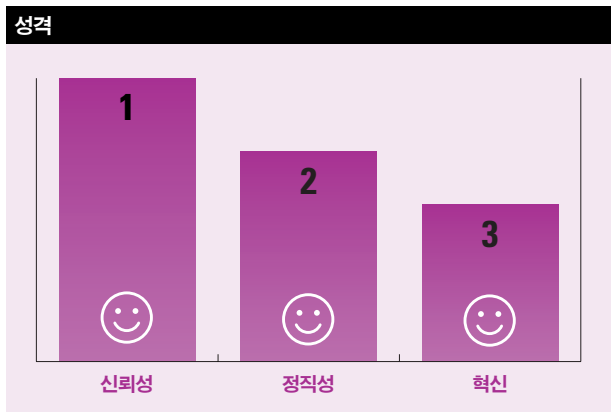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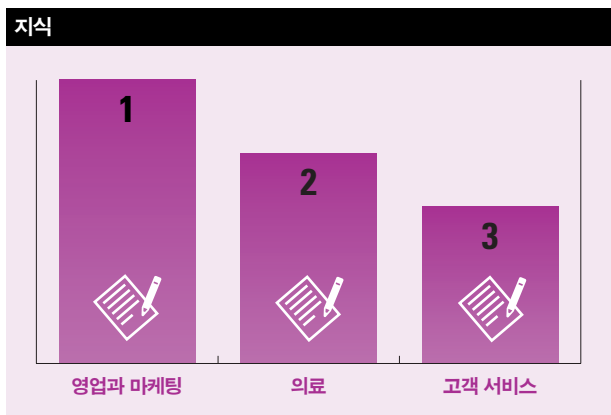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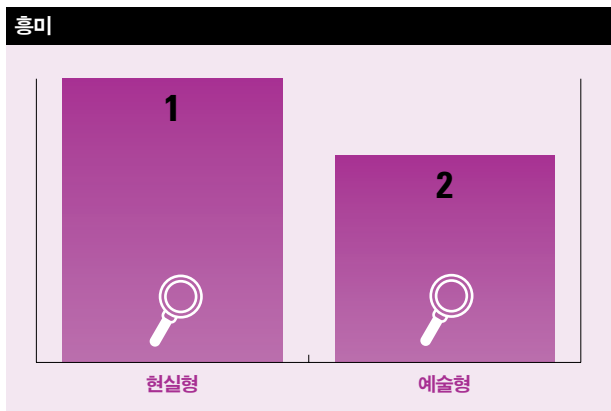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안경광학과를 졸업하고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안경광학과는 2006년 기준 9개의 4년제 대학교와 26개의 2, 3년제 전문대에 개설·운영되고 있다. 2002년부터 2년제 학제가 3년제로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2006년 현재 12개 대학이 3년제로 전환한 상태이다. 안경원에 근무하는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승진 및 임금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학사학위 취득자가 채용 시 좀더 유리하다. 안경광학과에서는 안경광학, 검안, 안경광학에 필요한 기초광학 등 여러 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이론 및 기술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안과학(시기생리학, 시기해부학, 기초생물학 등), 안광학(안경광학, 물리광학, 기하광학, 콘택트렌즈광학 등), 안경학(안경재료학, 안경조제 및 가공 등) 등의 과목에 대한 이론 공부 외에 임상 실습도 한다.



안경사

적성 및 흥미



● **관련 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안경광학과가 있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안경사 국가면허시험이 있다. 안경광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후 안경사 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안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된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면허취득 후 바로 안경원을 개업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안경원에 취업하여 실무 및 전반적인 영업 관리법을 배운 후 개업한다. 취업은 보통 인터넷, 신문, 학교의 취업정보실 등의 채용공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종합병원 및 개인 안과의원에 진출할 수 있으며, 안경렌즈 및 안경테 제조·유통업체, 특수렌즈관련업체, 광학기기관련업체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소규모 안경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승진이라는 개념보다는 경력이 쌓이면서 임금이 인상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대형안경원으로 이직한다. 또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안경원을 개업할 수 있다. 안경광학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관련 연구소에 들어가거나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해 꾸준한 교육 및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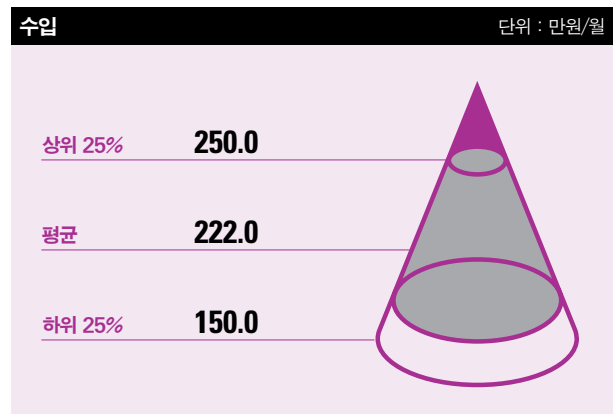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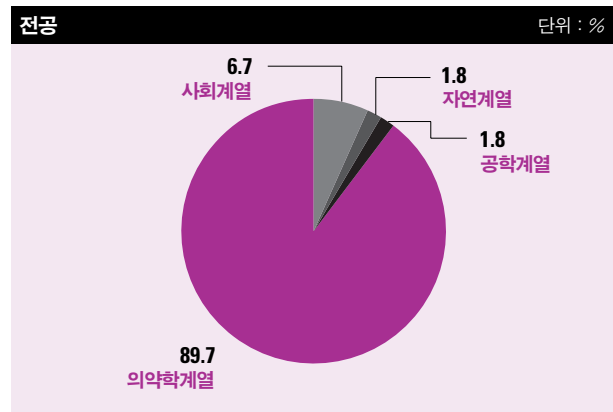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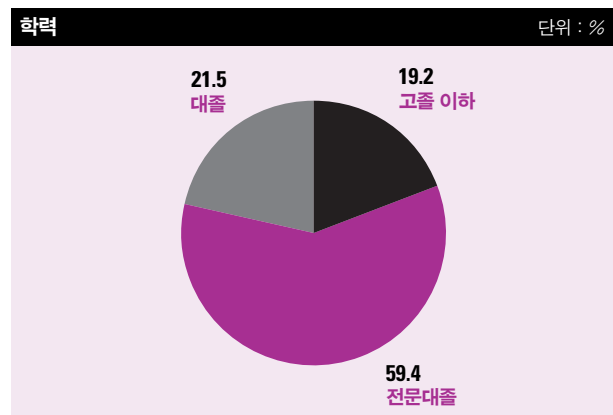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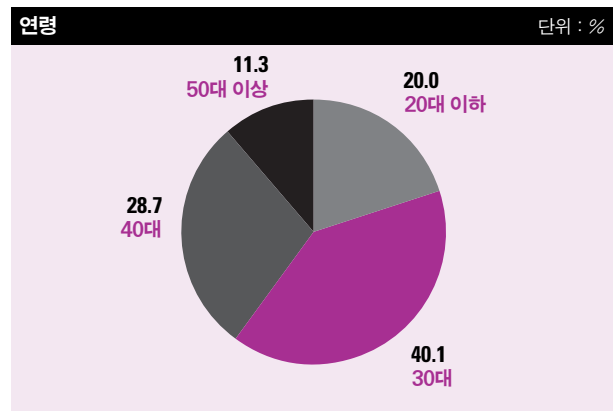
● 향후 5년간 안경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안경인구의 증가, 라식 및 라섹 수술인구 증가, 안경원 포화 등이 안경사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양한 비디오 영상매체의 발달과 컴퓨터 사용이 급증하면서 성인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시력 저하가 계속되

종사자 수 : 17,397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누진렌즈 등 노안과 관련한 제품의 판매가 증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안경인구의 증가는 안경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라식이나 라섹 수술 등 편의 및 미용 목적으로 시력회복 수술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안경수요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안경사의 수요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또한 안경원의 포화상태에 따라 안경원과의 과당 경쟁으로 안경사의 수익은 감소하고 있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안경사가 배출되고 있어 취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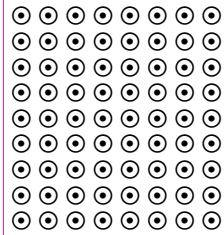
● 그러나 근무시간이나 보수 등 근무조건의 불만으로 이·전직하는 안경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체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고용주들이 인건비 절약 차원으로 신규 배출된 안경사의 고용을 선호하고 있어 신규인력의 경우 취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관련 정보처

- 대한안경사협회
☎ 02)756-1001 www.optic.or.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 031)440-9127 www.mohw.go.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71 안경사



하는 일

● 영양사는 개인, 단체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급식을 관리하고 식단을 계획하며 조리 및 식자재 공급을 감독한다. 이밖에 영양에 관련하여 상담하며 교육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 영양사의 활동영역은 다양하며 이에 따라 업무는 조금씩 상이하다.

— 각 산업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서 활동하는 급식관리분야의 영양사는 급식운영 계획 수립, 식단 작성, 조리·검식 및 배식 관리, 식품재료의 선정, 검수 및 관리, 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 급식인력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다.

— 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관리분야의 영양사는 환자의 식습관이나 식사력, 식사섭취실태 및 기타 영양상의 문제점을 조사 및 평가하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영양지원 및 영양관리를 수행하며 그 내용을 기록한다. 또한 식사 처방지침서 등을 제작하고, 영양교육자료를 개발하며, 음식물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치료식 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도를 하거나 환자나 퇴원환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영양문제와 관련한 영양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영양분야의 영양사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주민들의 영양지도를 계획하고 분석하며, 실제로 주민들의 영양지도를 한다. 또한 해당지역의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급식업무를 지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영양조사 및 영양평가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영양교육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홍보하며, 교육을 실시한다.

— 이밖에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재활 능력 증진을 위해 식습관 및 식생활을 지도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의 영양사는 영유아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기초 식습관 및 식생활을 지도하며 교육 자료를 연구·개발한다. 일부 영양사는 교육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영양상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건강식품을 개발하거나 식품위생감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약국 등의 건강식품 코너에서 건강식품 상담을 하는 영양사가 증가하고 있다.

근무환경

● 점심만 제공하는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통상적인 회사 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무한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급식해야 하는 급식소에서 활동하는 영양사는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교대근무를 하기도 하며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

● 조리에 필요한 전기·가스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 및 여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므로 위생복을 착용하고, 매우 철저하고 꼼꼼하게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및 2~3년제 전문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후 매년 1회 시행되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식품 및 영양학 전공에서는 물리, 화학, 수학 등의 기초과학을 바

탕으로 식품과 영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응용력을 습득하며, 생리학, 생화학 등 기초분야와 영양 분야, 식품 및 조리 분야, 급식 및 위생 분야 등을 배우게 된다. 교과목에는 영양학, 식사요법, 생화학, 생리학, 영양교육,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관계법규가 포함된다. 이외에 학교의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 **관련 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생활학과, 식품과학과 등이 있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영양사 국가면허시험이 있다.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후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도 응시자격이 있다.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분야별 전문영양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경력 조건 및 학력 조건이 충족되어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한영양사협회장 명의의 임상영양사, 급식경영영양사, 산업보건영양사의 전문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 시 좀 더 유리하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영양사는 급식회사, 병원, 학교, 보건소, 식품제조회사 등에서 근무한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규직 영양사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시험을 거쳐 배치된다.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이제까지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시험을 거쳐 학교에 배치되었으나, 영양교사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식품위생직 영양사의 대다수는 한시적으로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별도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영양사 배출학과(전공)에 진학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한 후 임용고시에 합격함으로써 영양교사로 진출할 수 있다. 경력자를 선호하는 일반 대규모 급식업체나 병원의 경우엔 인턴제도를 통해 신규직원을 선발하거나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 응시제한을 두기도 한다. 교수 및 선배 등의 추천 또는 협회나 인터넷상의 채용공고를 통해 취업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건강증진센

터,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체중조절센터 등 건강상담 분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일반적으로 한 학교 및 업체에 1~2명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어 승진하는 데 제한이 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계장, 차장, 영양부장까지 승진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영양사로 초등학교 7급, 중·고등학교 6급까지 직급이 부여된다. 또한 학교급식을 총괄하고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경우 5급까지 승진이 가능한데 학교 현장에서는 2006년부터 영양사가 단계적으로 영양교사로 전환하여 활동하게 된다. 이외에도 병원에서 임상영양사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 건강 상담 분야로 진출하기도 하며, 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기관에서 활동하거나 교수가 되기도 한다.

적성 및 흥미

● 음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며, 조리법이 나 음식메뉴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요리를 좋아한다면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식단 및 소요경비를 계획하거나 다양한 식품의 영양적 요건을 계산하기 위해 수리적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함께 근무하는 조리사 및 기타 종사자들과 협력하고 지도하며 업무를 수행하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영양상담 역할이 강조되면서 대인관계 능력도 요구된다.

직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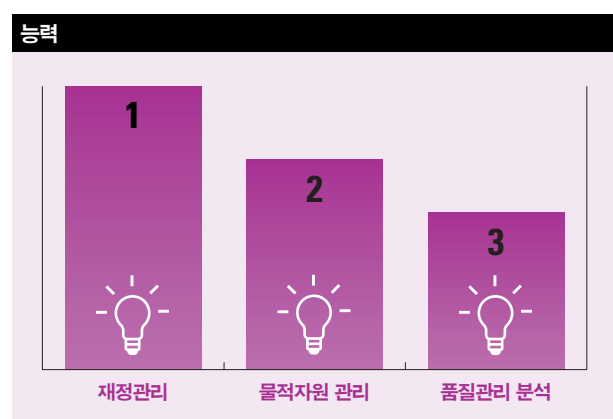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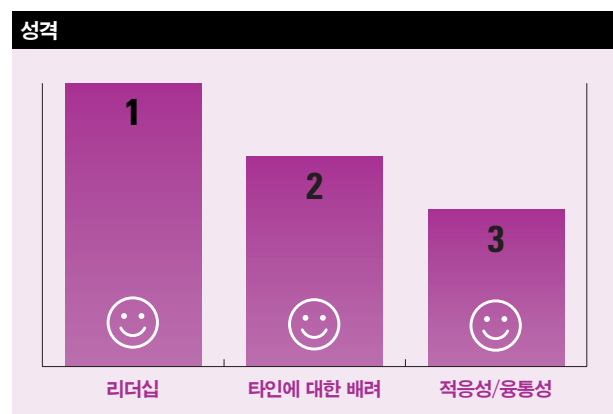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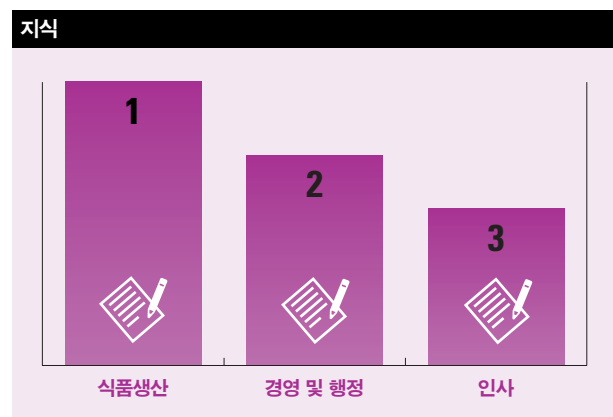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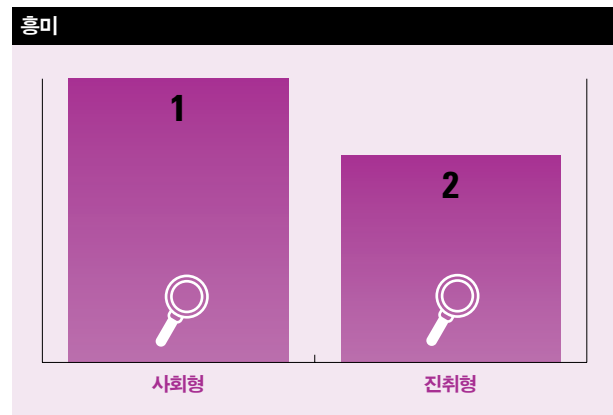
● 향후 5년간 영양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 영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 이른바 웰빙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영양사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영양사의 활동 영역이 더욱 세분화되고 다



영양사

적성 및 흥미



각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 각종 질병의 증가로 영양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과 맞물려 병원에서 당뇨, 고혈압 등 질환에 대한 임상영양사의 교육 및 상담이 요양급여로 인정되는데, 이는 영양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양사 배치율이 저조한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보건소, 복지시설 등에서도 영양사의 추가 채용이 기대된다.

● 비만과 체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식품, 기능식품의 연구개발에 영양사가 참여하고 이러한 제품에 대한 상담과 판매를 담당하는 영양사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003년 도입된 영양교사제도에 따라 2006년 처음으로 영양교사가 선발되어 학교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또 2006년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영양교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청소년의 발육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영양교사의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기존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양사와 식품위생직 공무원 영양사와의 대체 문제로 이어져 고용창출에는 큰 기여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영양교사의 등장은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년, 임금 등 영양사의 지위향상에 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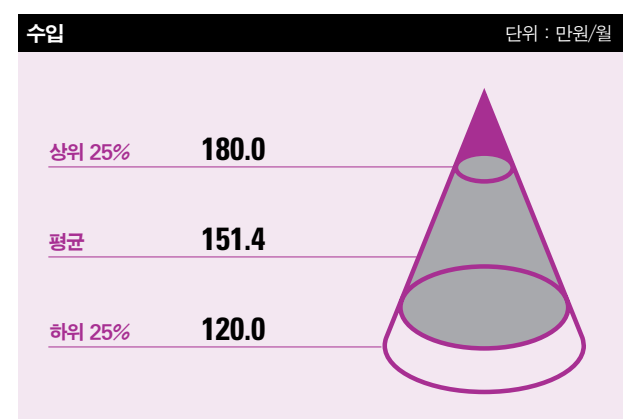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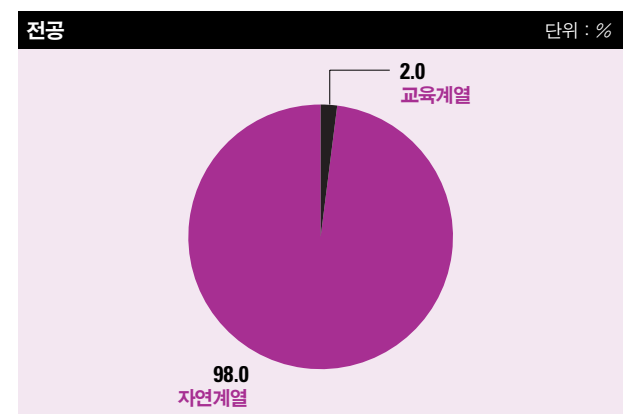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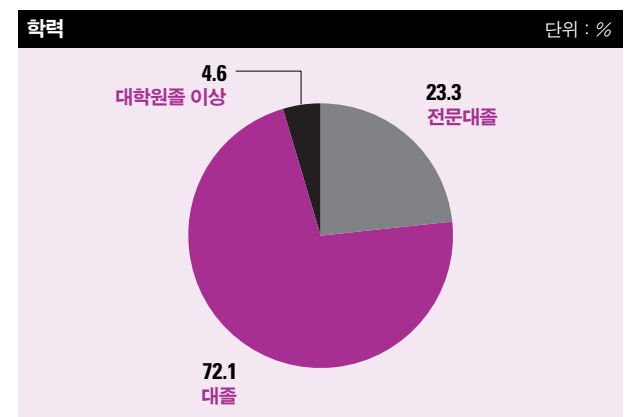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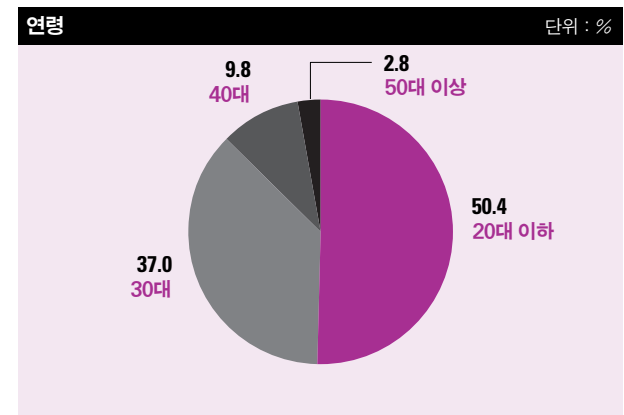
● 수요에 비해 매년 배출되는 영양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입직경쟁률은 높을 것이다. 특히 근무환경이 좋거나 임금이 높으며 고용이 안정된 병원, 대기업, 학교 및 보건소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관련 정보처

- 대한영양사협회
☎ 02)842-2466 www.dietitian.or.kr

종사자 수 : 19,964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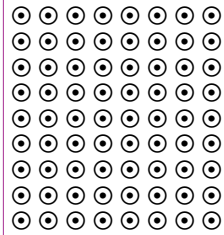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 031)440-9127 www.mohw.go.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74 영양사

의무기록사



하는 일

● 의무기록사는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을 담당하고 관련 정보를 유지 및 관리하는 일을 한다.

● 의무기록은 병원 통계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검토 및 평가하는 기본 자료로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관련된 모든 사항, 시행된 각종 검사, 치료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 의무기록사의 업무는 의무기록지 관리업무와 의무기록정보 관리업무로 크게 나눈다. 먼저 의무기록지 관리업무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적시적소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분류·정리하여 일정한 순서와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의무기록정보 관리업무는 의료진이 작성한 의무기록의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완결 기록의 관리, 병원통계 생성, 암환자 등록, 만성질환자 등록, 임상연구를 위한 정보의 제공, 외부기관 및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 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생성 등이 포함된다.

● 한편, 의료기관의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도입되어 의무기록사의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종래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의무기록지의 색출, 배송, 반납 등의 육체적 반복 업무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주로 환자진료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분석, 제공, 관련 통계의 생성 등의 업무로 변환되어 가고 있다. 전산화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사는 병원표준화 심사자료, 서비스평가 자료, 환자의 입·퇴원 현황 조사 및 경영통계 자료, 의학연구를 위한 통계 생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환자진료, 질병예방, 행정, 정책분석 및 경영기획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증가하고 있다.

근무환경

● 의무기록사는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실, 원무과, 보험심사실 등에서 주로 근무하며, 그 외에 정부기관, 보건관련연구소, 보험회사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의무기록사는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순번을 정해 당직근무를 하기도 한다. 종이차트로 가득했던 사무실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도입으로 쾌적하게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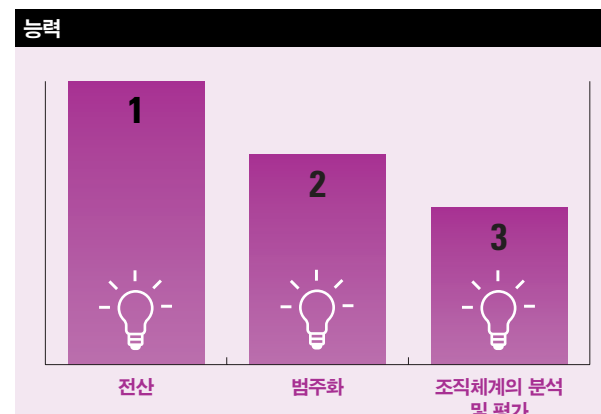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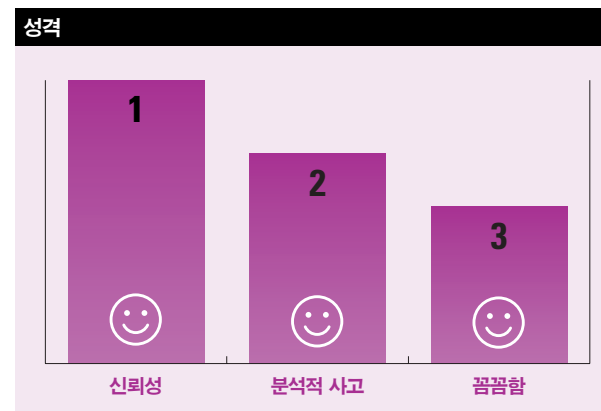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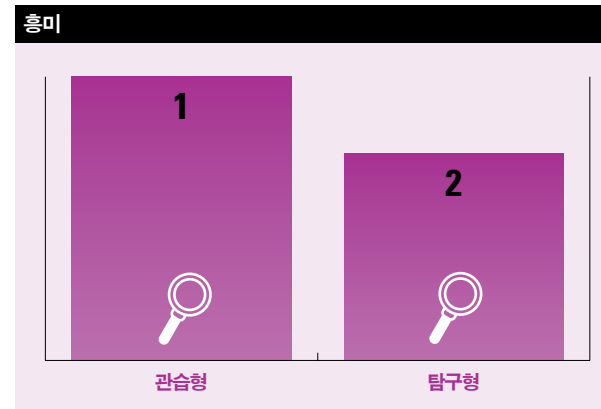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의무기록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의 교육기관에서 보건의료관련학을 전공하면서 의무기록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관련 학과에 입학하면 각종 보건행정 및 의무기록에 관한 전문지식을 배우며, 의무기록관리업무, 의료정보관리업무, 의료보험수납 청구 심사업무 등의 실무교육도 받는다. 교과과정에는 의무기록관리학, 의학용어, 질병 및 수술분류, 공중보건학, 의료보험론, 병원경영학, 의료의 질관리, 임상병리학, 보건의료행정, 병원회계학, 인체해부학, 병리학, 전산학 등이 포함된다. 대형 및 종합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사를 보조하는 의무기록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의무기록사 면허가 없는 일반 사무원이다.

● **관련 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의무기록정보학과 및 병원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등에서 의무기록사가 배출되고 있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매년 1회 의무기록사 국가면허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대학 이상의 보건의료관련학을 전공한 후 시험에 응시

적성 및 흥미



하여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외에 의무기록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대한상공회의소의 워드프로 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이나 민간자격인 한국능률협회의 정보검색사, 대한의무기록협회의 보건의료정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하면 주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개인 병·의원의 의무기록실에 취업할 수 있으며, 원무과나 보험과 등 행정부서 또는 전산실에서 일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보건직 공무원이나 보건관련 연구소, 보험회사, 보건위생관련 업체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인력 채용은 공채와 학교 추천의뢰를 통해 이루어지며, 종합 및 대학병원에서는 대학교 졸업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경력이 쌓이면서 분석, 조사연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종합 및 대학병원의 경우, 의무기록부장까지 승진할 수 있다. 이밖에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적성 및 흥미

● 의료분야의 전산화로 전문적인 전산지식이 겸비되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병원관리 및 인력관리 등 기본적인 병원경영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무기록 내용을 확인하여 질병수술분류업무와 진료통계 분석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므로 차분하고 꼼꼼한 사람이 적합하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의무기록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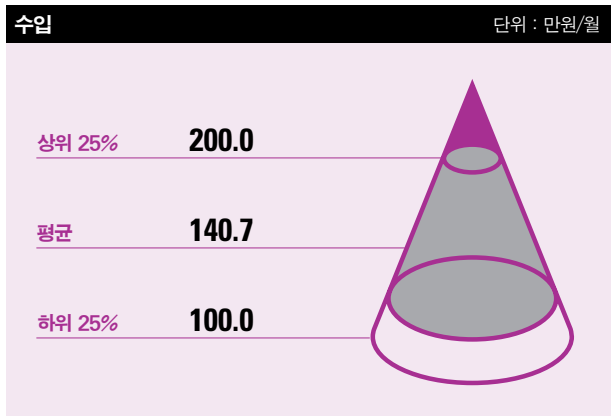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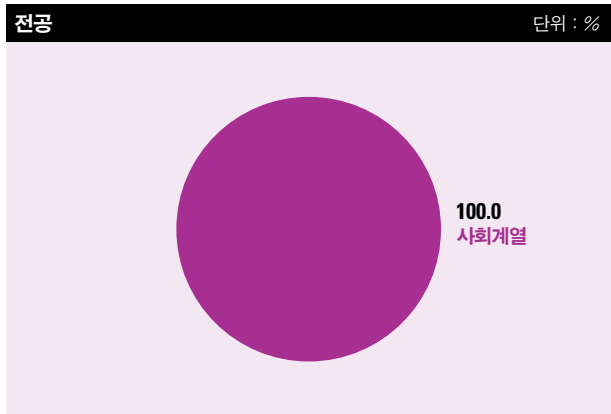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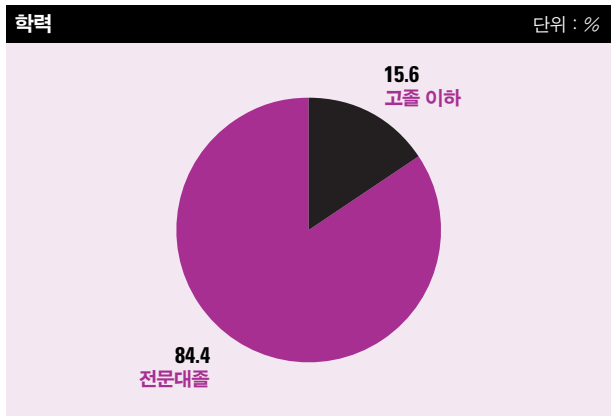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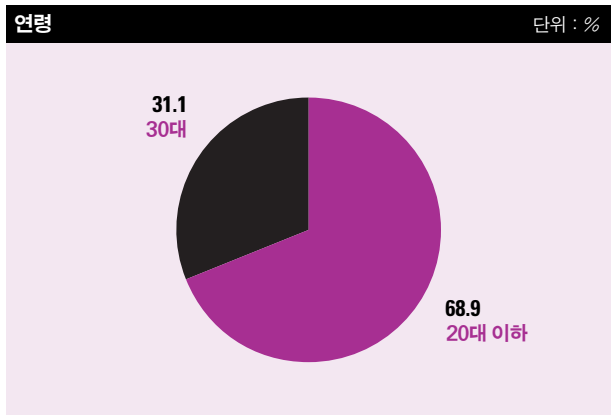
● 의무기록사의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의무기록사

종사자 수 : 3,281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인으로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한 의무기록의 구축·관리, 연구·분석, 보안 업무의 증감이라 할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구축·관리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전산화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이며, 연구·분석은 구축된 의무기록 자료를 질병 수술별로 분류하고 검색하며, 각종 통계자료를 연구·분석하는 업무이다. 그리고 보안 업무는 의무기록이라는 환자 개인의 민감한 사적 정보가 의무기록에의 접근권한이 없는 자와 기타 외부로 누출(漏出)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 EMR의 도입 초기에는 의무기록 작성이 전산화되어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EMR 입력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되는 미완결 기록이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의무기록을 구축·관리하는 업무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EMR의 도입으로 생산된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할 고급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환자 개인의 전산 자료가 외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자의무기록에의 접근권한관리, 전자서명관리 등의 보안관련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분간은 연구·분석 업무와 보안 업무를 담당한 전문 의무기록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 밖에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위한 의무기록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인력 수요가 있는 것도 의무기록사의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전체 의무기록사 면허자 중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무기록사가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고용성장률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의원에 근무하는 의무기록사는 급증하고 있어, 향후 이들이 전체 고용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병·의원 ¹⁾ 종사 의무기록사 수 (단위 :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병원	1,780	1,920	1,927	1,949
의원	0	0	59	674
합계	1,780	1,920	1,986	2,623

출처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각 연도
주 : 1) 병원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이 포함되었고 의원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원이 포함됨

● 다만, 최근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많이 개설함에 따라 향후 4~5년 후에는 인력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취업경쟁률도 매우 높을 것이다.

관련 정보처

- 대한의무기록협회
☎ 02)424-8514 www.kmra.or.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 031)440-9127 www.moh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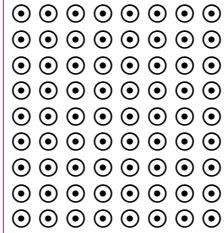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75 의무기록사

Tip 병원 시스템의 전산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 처방전달시스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입력한 처방전이 전산망을 통해 각 해당진료부서로 전달되고 처방 및 검사결과를 조회하는 시스템) 및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영상진단장치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광디스크 등 대용량 파일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전산망을 통해 각 단말기로 전송 및 검색하는 시스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병원 내에서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진료, 수술 및 검사기록을 전산에 보관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응급구조사



하는 일

●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 일본일조가 시급한 위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는 적절한 응급처치는 응급의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이러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현장 및 환자 이송 중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 응급 환자의 신고 접수를 받으면 구급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측정·파악한 후 현장 또는 응급 의료 시설로의 이송 중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생명이 걸린 일이므로 정확한 판단력과 세심한 주의력으로 환자를 보살펴야 하며, 병원에도착할 때까지 놀란 환자를 진정시키는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 병원에 도착한 후 처치 내용 및 출동사항을 기록하여 해당 진료의사에게 보고한 후 전산입력 작업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이들은 다른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을 보충하며, 구급차 내의 장비와 무선통신장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장비는 정비 및 교체하도록 한다. 보통 응급구조사와 달리 병원에서 활동하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에서 동맥혈 처치 등, 의사의 수술이나 진료 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1급 및 2급의 자격급수별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심박 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약물투여,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근무환경

● 응급구조사는 어떠한 날씨 조건하에서도 구조요청을 받으면 장소에 관계없이 출동하여 응급구조 활동 및 이송업무를 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의 경우 1년 365일 항상 대기상태에 있어야 하며, 보통 24시간 근무를 하고 24시간 쉬는 격일 근무를 한다.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 2교대 또는 3교대가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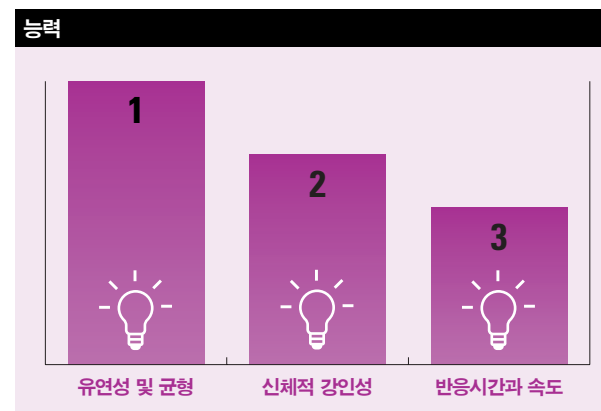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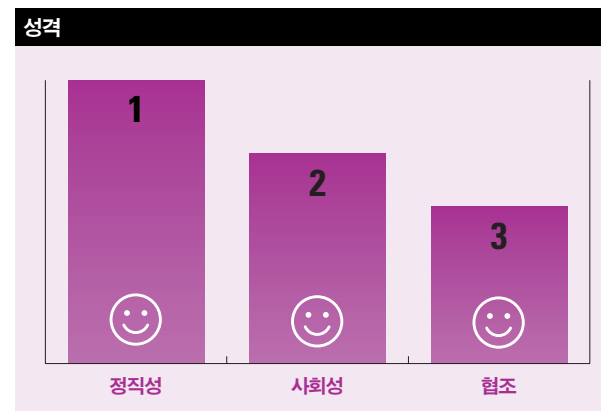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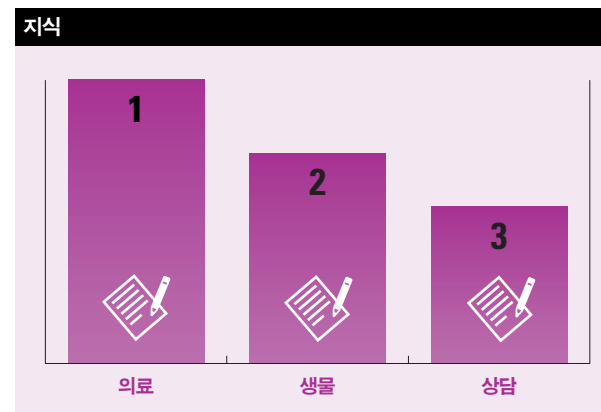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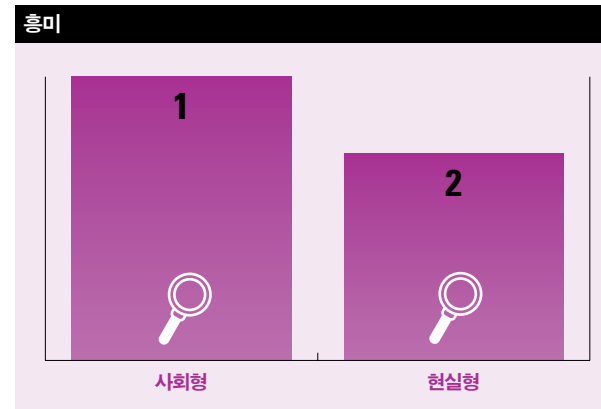
● 또한 서 있는 시간이 많고 환자를 들어올려 구급차까지 이송해야 하므로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 힘이 드는 직업이다. 더구나 구급차의 싸이렌 소리로 청각 손상의 위험이 있고, 항상 응급환자를 대하고 긴장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나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만큼 보람이 큰 직업이다.

● 각종 질병 및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개인 안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거나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1급 또는 2급 응급구조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게 되면 환자의 상태 및 환경에 따른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지식, 현장 또는 이송 중의 응급처치 및 구조법 등에 대해 이론 및 실무를 배우게 된다. 이를 위해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및 의학용어 등의 기초의학분야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전문응급처치학, 응급환자관리학, 정형외과처치술, 전문심장구조술, 호흡관리학, 수상구조학 등을 실습과 함께 배우게 된다. 2006년 현재 25개 응급구조학과 및 3개 소방학교, 국군군의

적성 및 흥미



학교에서 인원이 배출되고 있다.

● **관련 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보건학부(전문응급구조학 전공), 응급구조과 등이 있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응급구조사 1, 2급 국가자격시험이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 1급은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과를 졸업한 자나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 2급 응시자격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서울시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경기도소방학교, 국군군의학교)에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수상 및 산악 인명구조관련자격증, 무선통신관련자격증 등 협회 및 여러 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교수나 선·후배의 추천이나 대중매체를 이용한 공개채용을 통해 병·의원이나 응급이송업체로 취업하게 된다. 응급구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간의 경력을 쌓은 후 제환경쟁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인 소방서의 구급대원이 될 수 있다. 이밖에 중앙·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각종 응급의료기관 및 업체, 산업장의 의무실, 의료기업체, 공항소방구급대, 법무무교정직(교도실 및 구치소 의무실 근무), 국방부 의정부사관, 간호부사관, 스포츠시설안전요원, 산악구조요원, 수상구조요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대학 재학 중에 자격증(응급처치강사, 수상안전요원, 자동차대형면허 등)을 함께 취득한다면 취업 시 좀 더 유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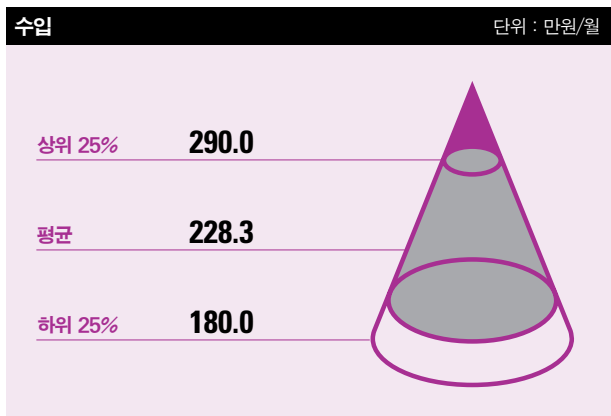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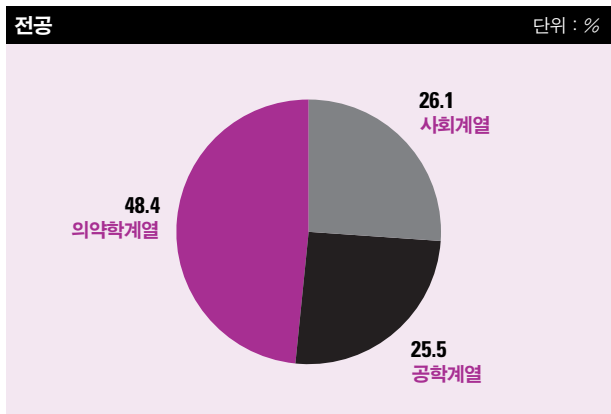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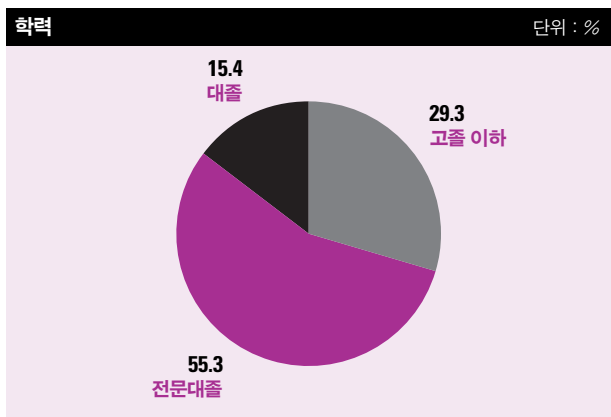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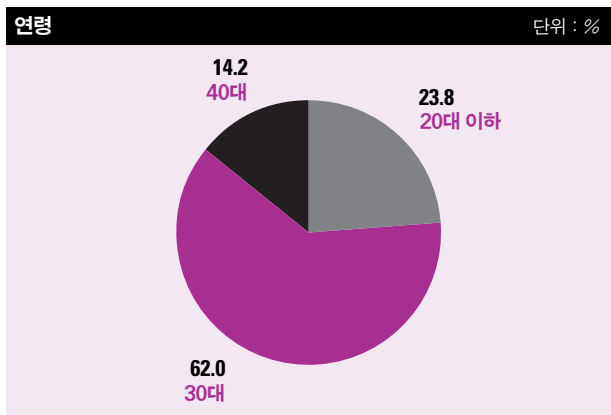
● **승진 및 경력개발** :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응급구조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한다. 일부는 경력을 쌓은 후 응급처치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응급구조사

종사자 수 : 4,363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적성 및 흥미

- 항상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순간적인 판단력 및 순발력이 필수적이며,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남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며 지역 간 장거리 환자 이송을 위해서는 건강한 체력도 필수이다. 이밖에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자신 있게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며, 팀을 이루어 일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이 필요하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응급구조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의 사건사고가 다양해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응급질환자의 증가로 현장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응급의료체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구급차당 소방응급구조사 수를 지속적으로 증강할 계획이며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도 교정 응급구조사를 충원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주5일근무 확대 실시와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각종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현장에서의 구급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 및 레저시설, 위락시설 등에 응급구조처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수상안전요원, 산악안전요원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06년 현재 응급구조사 인력은 1급 6,070명, 2급 5,259명으로 향후 2010년까지 응급구조사가 약 18,000명 정도(보건산업진흥원 추계)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매년 약 1,600여 명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어 2015년 이후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잉여 응급구조사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업하는 데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결론적으로 응급구조사 중 공무원 신분으로 활동하는 구급대원은 고용안정 등으로 선호되고 있어 입직을 위해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근로조건이 좋은 병원과 대기업의 경우에도 입직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취업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규모 병원 응급실이나 응급구조단의 경우 열악한 근무조건과 보수 등의 문제로 이직이나 전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전직에 의한 대체수요로 일자리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처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053)953-1339 www.emt.or.kr
- 소방방재청
☎ 02)2100-2114 www.nema.go.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 031)440-9127 www.mohw.go.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676 구급요원(응급구조사)